세종문화회관

SEJONG CENTER MAGAZINE —— JUNE — JULY 2023 —— N° 06 —— SYNC NEXT 23

SEJONG CENTER MAGAZINE —— JUNE — JULY 2023 —— N° 06 —— SYNC NEXT 23

CONTENTS

SYNC NEXT 23

02
여섯 가지 춤 사용법, 몸으로 몸한다

10
프로듀서 250의 힘, 아직도 모르시나요

12
코끼리들이 웃는다와 커뮤니티, 물질

15
뻔한 곳을 향해 걷다, 그러면 사랑 얘기는 누가 하지

18
우리가 이날치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히히하하

19
우리 모두의 양면성에 대해, 왜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27
관객과 공연 문화가 어우러진 작은 정원, TERRARIUM

28
광장의 울림, 광광,굉굉

33
이 세상 모든 시옷을 위해, 쓰인 적 없는 ㅅ

34
궁리소 묻다의 과학-몸-우주=물리학-미학-철학, 우주 양자 마음

36
성실한 n잡러 현진 씨, 백현진 쑈: 공개방송

43
GRIMENTO, 결국은 '희망'

온몸에 닿는 공기의 온도가
미적지근해지는 여름.
이 계절을 기다린
세종문화회관 컨템퍼러리
시즌 Sync Next 23이 7월
6일 개막한다. 개성과 매력이
충만한 22명(팀)의 아티스트가
한자리에 모여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 저마다 상상력
넘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올여름을 세종S씨어터에서
보낼 이만한 이유가 또 있을까?

INTERMISSION

고관여 관객의 공연 문화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47
고관여 소비자의 존재, 득인가 독인가?

49
부와 공생하는 클래식 음악계

53
금지는 금지를 낳고

"조성진을 향한 애착으로 해외
공연 원정에 나서는 강력 팬덤도
등장했다. 클래식 음악 공연은
본질적으로 연주자와 청중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다가 공연이 끝나면
서로 안녕을 고하고 사라지는 일회성
예술이다. 그러나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서울을 떠나 원정에
나서, 심지어 연주자가 잊고픈
연주까지 남김없이 '출첵'하는 환경이
한동안 이어졌다. (…) 도를 넘는
애착이 클래식 음악 업체를 먹여
살리더라도 아티스트에 해가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클래식
음악계에서 고관여 소비자의 존재는
득인가 독인가?"

ARCHIVE

57
conversation
좋은 연극에는 희망이 있다, 서울시극단장 고선웅

62
artist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성시영

68
exhibition
규정할 수 없는 문화, 스니커즈

70
art in art
윤형근, 화폭에 번진 작가의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들이
빚어내는 요지경 속"에서
"여전히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춘"
시즌 라인업을 발표한 고선웅
서울시극단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연출작 〈겟팅아웃〉
개막을 앞둔 지금, 그는 여전히
사람이 연기하고 사람이
만드는 연극의 매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발행인 **안호상** 편집/기획 총괄 **김화영 최준식** 편집위원 **박병성 정성갑 최여정 한정호** 표지 사진 **장석현(코끼리들이 웃는다 제공)**
아트 디렉터 **손민지** 기획/편집 **김태희** 사진 **세종문화회관 Studio Kenn Studio79** 제작 **designikki** 인쇄 **으뜸프로세스(주)** ISSN **2951-1615**
발행처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T.** 02-399-1000 **www.sejongpac.or.kr**

'세종문화N'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세종문화회관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각 원고는 필자 혹은 인터뷰이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숲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종이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녹색 제품을 사용합니다.

**만족도 조사 및
정기구독(재구독) 안내**
'세종문화N'은 격월 주기로
한정 부수 제작되는
매거진입니다. 발행 1주년을
맞아 재구독 및 연간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독자께서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고 재구독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신규 독자께서도 한정 기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SYNC NEXT 23

지난해 처음 선보인 세종문화회관 컨템퍼러리 시즌 'Sync Next'. 첫 번째 시즌이 끝난 뒤 여기저기서 반응이 들려왔다. "세종(문화회관)이 이런 기획을?"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를 저울질하며 오늘과 내일을 잇는 예술을 펼쳐놓는 '여름 시즌'이 올해 더욱 풍성하게 돌아온다. 67일간 22명(팀) 아티스트가 12편의 실험을 펼칠 계획. 장르 구분도, 작품 형식도 과감히 지워버리고, 예술가들의 자유분방한 실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파격에 주목한다. 블랙박스 세종S씨어터는 이들이 선보일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 01에서 22까지 저마다 개성과 매력이 충만한 아티스트 사이를 유영하며 지면을 넘기다보면, 비로소 Sync Next 23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여섯 가지 춤 사용법

몸으로 몸한다

글. 양지울
조형예술·연극학을 공부하는 동안 공연예술의 매체 특성에 매료돼 '프로 관람러'로 활동, 공연 만드는 일을 하며 살겠노라 결심해 국립현대무용단 기획팀을 거쳐 현재 프리랜서 공연 기획·제작 프로듀서, 드라마투르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문화재단에서 발간한 매거진 '와 나WANA' 2호, '몸 와 나'의 객원 편집장을 맡은 안무가 김재덕은 자신을 포함해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국의 무용가 6팀을 소개하고, 이들이 각각 춤과 관계하는 방법을 글과 이미지로 보여주며 동시대 '춤'과 '몸'의 양상, 다양한 춤의 패러다임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냈다. 무용 장르 내에서도 각기 다른 아티스트들의 '춤 사용법'을 구분하는 임의의 세 가지 범주를 '몸으로 몸하다', '몸으로 말하다', '몸으로 그리다'로 표현하고, 이를 오늘날 춤 공연을 이루는 굵직한 장르적 양상으로 설정, 각 카테고리의 표현 특성을 매개로 몸과 관계하는 무용가들의 작품 세계를 지면에 펼쳐보였다. 무용가들이 '움직임'이라는 재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며 이들이 공연하는 작품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 흩어지듯 모인 문장과 다채로운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이렇게 소개된 여섯 무용가는 바로 김재덕, 바리나모, 성창용, 김미애, 김보라, 뮾Mu:p이다.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 몸을 훈련하고, 훈련된 몸으로 움직임을 행한 뒤 다시금 훈련하기를 무수히 반복하며 움직임의 감각과 관계하는 사고의 흐름을 숨 쉬듯 체득해온 베테랑이다. 오는 7월 비로소 이들이 지면을 벗어나 실제 극장에 모두 모여 '몸' 하거나, 말하거나, 그리며 각양각색 움직임과 다양한 몸의 문법을 성좌星座처럼 선보일 예정이다. 자리하는 곳도, 구성하는 물질도, 색깔도 다른 별들이 가까이 모여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 별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공연은 관객에게 이 시대의 다양한 움직임 예술을 한자리에서 응시하고 저마다 각자의 그림을 떠올려 보게 하는 관측의 자리가 될 것이다.

공연은 토대가 된 '몸 와 나'의 기본 틀이자 앞서 부연했듯 춤 공연의 세밀화된 범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세 개의 주제를 가져와 구성하며, 각 주제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기존 작품 세계를 15-25분 내외의 소품 버전으로 새롭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세 작품씩 조화를 이루도록 엮어 두 개의 파트로 여섯 팀이 소개되는 방식으로 꾸렸다.

#몸으로 몸하다: 김재덕 바리나모

할 말을 정해두지 않는 몸짓, 움직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춤에 관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근간으로도 볼 수 있다. 김재덕과 바리나모는 이런 근원적인 움직임에 집중한다. 담고 있는 무언가가 그 자체로서 행해지는 것, 혹은 그것들과 온전히 호흡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 김재덕은 직관적인 움직임, 현상의 개연성을 디자인하는 방법으로 안무한다면, 바리나모는 춤을 추는 순간 몸이 감각하는 외부로부터의 에너지를 몸 안으로, 다시 밖으로 순환하며 안과 밖의 경계를 투명하게 하는 데 집중한다.

#몸으로 말하다: 성창용 김미애

무용수로서 다양한 안무가의 이야기를 흡수해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치며 고유한 역사를 축적해온 어떤 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파생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조합된 언어로서의 춤에 관한 이야기다. 성창용과 김미애, 두 예술가는 오랜 시간 많은 작품을 만나며 무용수로 활동해왔고, 안무가의 언어를 해석해 의도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훈련하고 여러 낱말을 체화하는 숱한 과정을 거쳤다. 이들이 작가로서 무대에서 춤출 때 선택하는 춤의 언어는 어떤 것일까? 성창용은 '춤추는 몸'의 신체성, 감각 그리고 이를 둘러싼 서사와 규범 등에 주목한다. 전통춤과 컨템퍼러리 댄스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김미애는 '지금'을 살아가는 몸이 전통의 맥 위에서 재현해내는 변주와 자율성에 관심을 갖는다.

#몸으로 그리다: 김보라 뮾

몸이 공간이나 오브제 같은 몸 밖의 재료와 호흡하며 움직임을 만들고, 움직임으로부터 이미지, 중첩되는 시공간이 발생할 때를 이야기한다. 이들은 언어화되지 않아 그 자체로 감각을 일으키는 요소가 몸의 움직임과 함께 하나의 그림을, 공간을 그려내는 작업을 한다. 김보라의 작업에는 움직임이 다른 요소와 만나 그려내는 추상적 아름다움의 이미지 텔링image telling이 존재하며,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공간에서 감각과 상상에 집중한다. 안무와 건축에 기반을 두는 조형준·손민선으로 구성된 뮾은 구조물, 빛, 시스템 등 다양한 재료가 만들어내는 장소적 맥락이 신체·사물과 반응해 발생하는 것에 주목한다.

다양한 경험을 지나오며 만들어진 이들의 각양각색 움직임 문법은 이렇게 저마다 고유한 모습을 띤다. 한편, 김재덕은 그럼에도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이들을 하나의 범주에 가둘 수는 없음을 강조한다.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자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정말로 즐거운 사실은 이들 '몸 언어'의 기원이자 역사가 되는 많은 영감과 수행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극장에서, 연습실에서, 이들이 지나고 교류하는 크고 작은 많은 곳에서 여전히 활화산처럼 끓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현대무용의 흐름이며 미래인 이들의 움직임을, Sync Next 23 개막작 〈몸으로 몸한다〉를 통해 많은 관객들이 만나보기를 바란다.



모던테이블 〈송도〉 ©BAK

01

김재덕은 모던테이블 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이자 싱가포르 T.H.E 댄스 컴퍼니T.H.E Dance Company 상주안무가다. 홍콩 시티 컨템퍼러리 댄스 컴퍼니City Contemporary Dance Company 〈BROWN〉의 안무와 작곡, 뉴질랜드 댄스 컴퍼니New Zealand Dance Company 〈Sigan〉의 초청 안무와 작곡을 진행했다.

김미애는 국립무용단 단원으로, 〈회오리〉, 〈제의〉, 〈리진〉, 〈다녀와요 다녀왔습니다〉 등 작품의 조안무를 맡았다. 춤을 풀어내는 사람의 향기가 움직임에 묻어난다는 생각으로 전통과 창작 작품의 결합과 재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서울무용제 최고무용수상, 2007년 무용예술상 무용연기상, 2006년 춤 비평가상 무용연기상을 받았다.

02



왼쪽부터 〈시간의 용납〉, 〈여행하는 방〉

03

김보라는 아트프로젝트보라 예술감독이자 대표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2021년 국립현대무용단 〈그 후 1년〉 안무, 2019년 경기도립무용단 〈공전〉 객원 안무를 맡았다. 영국 런던 더 플레이스The Place, 프랑스 생 드니 페스티벌Festival de Saint-Denis 등에 초청받았고,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04

김바리와 주나모가 함께하는 바리나모는 공동 작업을 기반으로 연구·창작하는 무용가 듀오다. 〈아나킥 쿼텟〉, 〈PHYSICAL SPACE〉 시리즈, 〈춤추는 섬〉 시리즈, 〈아나킥 리추얼〉 등을 기획·연출했고, 2020년 한국춤비평가협회 춤연기상을 받았다.





성창용은 2021년부터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객원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무용단(2017-2021년), 뉴욕 모믹스MOMIX(2014-2016년), 앨빈 에일리 세컨드 컴퍼니Ailey II (2009-2012년)를 거쳤다. 2017년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안무가상, 2009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시니어 부문 금상 등 국내외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05

뭎[Mu:p]은 안무와 건축에 기반을 둔 조형준과 손민선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듀오다. 국립현대미술관 《젊은 모색 2023》 참여 작가이며, 대표작으로 〈버틀러와 포스터〉2022, 〈화려한 바로크 세계〉2022, 〈데카당스시스템〉2022, 〈캐스케이드 패시지〉2020, 〈오버더월〉2016 등이 있다.

06

뭎, 〈화려한 바로크 세계〉, 2022 ©Yeonkeun

07



프로듀서 250의 힘 아직도 모르시나요

글. 김학선
대중음악평론가. EBS
〈스페이스 공감〉 기획위원,
멜론 매거진 '트랙제로'
전문위원이다. 그밖에도 여러
매체에 글쓰고, 말하고 있다.

올해 3월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올해의 음악인' 수상자는 250이었다. 한국대중음악상은 국내의 기존 음악 시상식과는 달리 인기나 차트 순위에 기준을 두지 않고 음악적인 성과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시상식이다. '올해의 음악인' 부문은 음악적인 성과뿐 아니라 활동 내역이나 신scene에 끼친 영향력 등을 두루 적용해 수여한다.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규정집을 보면 '올해의 음악인' 부문에 대해 "음반의 성취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대중음악과 대중음악 산업을 위해 기여한 여타의 음악적 활동—공연 활동, 사회 활동 등을 부가적 가치로 종합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이 상만이 아니었다. 250은 장르 부문인 '최우수 일렉트로닉-음반'과 '최우수 일렉트로닉-노래' 부문, 그리고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음반' 부문까지 수상했다. 4관왕에 오른 것이다. 지금 언급한 세 부문은 음악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올해의 음악인' 부문은 대외 활동까지 고려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250은 2022년 최고의 앨범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음악적 활동까지 병행했다. 그 활동 가운데 하나는 뉴진스NewJeans의 프로듀서 역할이다. 뉴진스의 'Hype Boy'와 'Attention', 'Ditto'를 만든 작곡가·프로듀서가 250이다. 뉴진스는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인' 부문을 비롯해 3관왕에 올랐다. 농담 삼아 250을 한국대중음악상 '사실상 7관왕'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250은 K팝 프로듀서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250은 뉴진스 이전부터 보아·NCT 127·있지ITZY 등의 음악을 만들어왔다. 그를 K팝 프로듀서라 불러도 큰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 영역은 K팝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다. 이태원 클럽에서 DJ로 활동을 시작한 250은 래퍼 이센스E SENS와 김심야의 음악도 만들었다. 그러니 그는 힙합 프로듀서이기도 하다. 여기에 250은 자신의 앨범 〈뽕〉2022을 만들며 영역을 극단적으로 확장했다. 앨범 제목 '뽕'은 '뽕짝'의 그 '뽕'이다. 뉴진스의 감각적인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음악으로 취급받는 뽕짝, 즉 트로트 앨범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만든 뽕짝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뽕짝과는 결이 달랐다. 트로트가 다시 인기를 얻을 때, 음반 제작자 겸 작가 이주엽은 한 일간지에 '성인 가요의 미학적 파산'이라는 칼럼을 썼다. 뻔하고 퇴행적인 가사, 미학적 수고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멜로디, 열 곡이 한 곡인 듯 기계적 패턴을 반복하는 편곡. 교태 섞인 꺾기를 가창의 표준으로 삼아 무대에서 품위를 밀어내온 창법 등이 근거였다. 나는 전적으로 그 칼럼에 동의했다. 그동안 우리가 친숙하게 듣던 트로트·성인 가요 혹은 뽕짝은 이주엽이 나열한 특성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아니, 벗어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250은 새로운 성인 가요, 새로운 트로트, 새로운 뽕짝을 만들고자 했다. 가령 그는 첫 번째 곡 '모든 것이 꿈이었네'에 신바람 이박사의 음악 프로듀서 김수일을 초빙했다. 이박사는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지만 그의 뒤에서 음악을 만들어온 김수일은 그동안 아무도 조명하지 않았다. 같은 프로듀서로서의 동질감이었을까. 250은 김수일이 노래하는 것을 녹음해 〈뽕〉의 첫 곡으로 수록했다. 김수일의 노래에는 세월의 힘이 묻어 있었다. 노래는 담담하지만 울림이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김수일은 겸연쩍다는 듯 말한다. "내가 가수가 아니니까."

250은 곧 김수일이었고, 김수일이 곧 250이었다. 왠지 서글픈 노랫가락이 〈뽕〉에 일관되게 담긴 정서였다. 흥겨우면서도 애잔하고, 그래서 묘하게 웃긴 음악. 그 슬픈 기분을 안고 달리는 게 뽕이라고 250은 정의했다. 〈뽕〉을 제작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K팝의 작업 방식 가운데 하나인 '숭 캠프'를 농담처럼 빗대 '뽕 캠프'를 열기도 하고, 서울 동묘시장, 영등포 성인 댄스 교습소, 경기도 이천 덕평자연휴게소, 〈전국노래자랑〉 예선 장소, 지역 축제 현장까지 전국을 누비며 뽕짝의 근원과 정서를 탐구했다. 그 과정을 담아 〈뽕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뽕〉은 음악적 파산을 맞은 기존의 뽕짝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뽕짝이 됐다. 나에게도 〈뽕〉은 뽕짝을 넘어 한국식 라운지 음악처럼 들렸다. 말하자면 감상용 음악이 되었다는 뜻이다. 뽕짝, 트로트에 감상용 음악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뽕〉은 그렇게 만들었다. 가령 '비창' 같은 곡은 뽕짝 특유의 정서가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전자음악의 향까지도 머금고 있다. '고급스러운'과 '향'을 감히 뽕짝 음악에 써도 어색하지 않은 음악을 완성한 것이다.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이 끝난 뒤 250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박사부터 뉴진스까지'의 음악을 모두 갖고 있는 그의 배경도 이야깃거리로 충분했다. 아울러 많은 이들이 그의 공연을 궁금해했다. 일찌감치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디제잉을 해온 그가 〈뽕〉의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무대 위에서 연출할지가 관심사였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기획한 250의 〈아직도 모르시나요〉 공연은 그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기회다.

250은 이번 공연에서 건반 세 대와 MPC·CDJ를 활용해 뽕의 세계를 연출할 계획이다. 단순히 하나의 공연이 아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프로듀서의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그동안 획일화된 뽕짝의 새로운 가능성과 무드를 선보이는 시간이기도 할 것이다. 흥겨우면서 애잔하고, 애잔하면서 웃긴, 그의 모순적인 무한대의 음악이 펼쳐질 것이다. 생각해보면 '뽕'은 그동안 부정적이며 폄하의 의미로만 쓰여왔다. 하지만 250의 〈뽕〉이 나오면서 '뽕'은 매우 감각적인 음악처럼 받아들여졌다. 음악이 가진 힘이며 동시에 프로듀서 250의 힘이기도 하다.

08

코끼리들이 웃는다와 커뮤니티

물질

글. 박다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하고, 프랑스 리옹2대학에서 공연예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극단, 극장, 축제 등에서 기획자로 활동했고, 2013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무용평론으로 젊은비평상 가작을 수상했다.
사진 제공. 코끼리들이 웃는다

불과 2-3년 전까지 '코끼리들이 웃는다'의 작업을 보기 위해서는 극장이 아닌 특정 장소로 향해야만 했다. 삶에 내려앉은 수북한 먼지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 철공소로, 일상의 소음이 불특정하게 난입하는 누군가의 거주 공간으로, 동네 주민들의 잔치 현장으로 가 그곳의 풍경과 그들의 일상을 잠시 경험하고 떠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그들의 '일상'은 우리의 여느 때처럼 흘러가는 하루에 그치지 않는다.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관객을 특정 장소로 초대해 우리가 차마 들여다보지 못했던 공간과 사람을, 직업을, 장소가 지나온 역사를, 그곳에 도래한 문제와 위기를, 그럼에도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 생生을 퍼포먼스와 함께 펼쳐 보이기 때문이다.

단체가 창단한 2009년부터 코끼리들이 웃는다의 대표이자 연출가 이진엽은 청계천 철공소 지역인 입정동으로 가 커뮤니티 사람들과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나가며 장소 특정형 커뮤니티 공연을 만들어왔다. 입정동 재건축 이슈를 다룬 〈바람바람〉2009부터 마을 잔치를 벌인 〈동동〉2011, 입정동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1인 사업장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담긴 커다란 박스를 끌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공연한 〈동네 박물관 시리즈 1 청계〉2012, 한국과 일본 주물 기술자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의 변화상을 들려주는 〈두 도시 주물이야기〉2013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안녕, 광명〉2019이나 〈독산 여러분〉2020을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커뮤니티 작업을 이어갔다.

동시에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커뮤니티 개념을 장소에서 감각이나 정체성으로까지 확장해나갔다. 2015년에 발표한 〈볼 것이 없다〉를 시작으로 〈몸의 윤리〉2015, 〈3시에서 3시, 4시에서 4시〉2019, 그리고 최근 작품인 〈커뮤니티 대소동〉2022까지 세 작품은 시각이 제한된 완전한 암전 속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시각을 소실한 사람들이 감각하는 세계를 탐구하고, 이들이 공간이나 사회를 인지하는 방식을 관객에게 경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노년의 인물들이 개인의 오랜 성 역사를 이야기하는 〈잠자리 연대기〉2021나 난민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담아낸 〈물질〉2018 또한 커뮤니티의 접근을 나이·신분 등으로 달리 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진엽은 예술을 삶의 반경 안에 두지 않은 이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커뮤니티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자신의 작업 배경을 설명한다. 그러나 지난 커뮤니티 작업을 반추해보면, 이는 비단 코끼리들이 웃는다가 예술과 물리적·심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커뮤니티 안으로 직접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해당 커뮤니티와 먼 거리에 있는) 관객을 커뮤니티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코끼리들이 웃는다가 커뮤니티 안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삶의 역사를, 사회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이타적으로 감각해야 하는 것들을 포착한 뒤 관객에게 이를 적극적인 태도로 체험하길 유도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작동하는 세계

코끼리들이 웃는다의 작업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믿음'이다. 이들은 믿음을 담보로 걸고 커뮤니티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커뮤니티 사람들은 믿음을 내건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경험을 공유한다. 코끼리들이 웃는다의 세계는 믿음으로 설계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관객을 만날 때 이 믿음의 세계는 더욱 강력하게 작동한다.

작업 중 다수는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어른들이 놀이에 참여해야만 공연이 진행되는 〈놀이사용설명서〉2013, 완전한 암전 상태인 실내 공간에서 24시간 동안 여러 활동을 해야 하는 〈3시에서 3시, 4시에서 4시〉, 관객이 함께 안무를 추고 배우들을 따라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이머시브 뮤지컬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2023까지 관객의 참여가 비로소 공연을 완전하게 만든다.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여러 공연을 지나오며 관객들의 '믿음'을 실험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 정도로 때론 관객에게 과감한 참여를 요구한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관객에게 이 세계가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한 약속이 절대 깨지지 않을 것임을, 당신의 참여가 이 커뮤니티를 하나로 이어낼 것이란 사실을, 그 의미의 전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한 방식으로 믿음의 세계를 설계한다. 그 믿음 안에서, 관객들이 안전하게 이 세계로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Sync Next 23 무대에 올라가는 〈물질〉은 2016년 초연한 뒤, 2018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난민들과 만나 〈물질 2 물질하다가〉라는 제목으로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서울거리예술축제 등에서 공연한 바 있다. 두 공연 모두 배우들이 물이 가득 채워진 대형 수조 안으로 들어가 생사의 경계의 놓인 육신이 끊임없이 출렁이고 흔들리는 이미지를 생성해낸다는 점에서, 더불어 관객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초연의 〈물질〉이 장소성을 기반으로 현대인의 삶을 해녀의 수중 작업에 빗댄 공연이었다면, 〈물질2 물질하다가〉는 난민이 맞닥뜨린 삶과 사회 안에서 자꾸만 은폐되는 이들의 존재가 생사의 경계를 오간다는 의미에서 물질에 비유된다. 그리고 두 공연 모두, 출렁이는 물살 속에서 물질하던 신체가 현실의 관객에게 손을 내밀어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험한다. 우리가 연결된 존재라는 점을 믿고 있는지, 혹은 믿게 됐는지 손을 내밀어 질문해온다.

2023년의 〈물질〉은 이전 버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야외 공간이 아닌 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도심과 광장에 놓인 수조가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발생시키며 일상에 균열을 일으켰다면, 허구의 공간 안으로 들어온 수조는 어떤 이미지로 관객의 현실에 침입하게 될까. 최근 몇 년 사이 이진엽 연출은 〈커뮤니티 대소동〉,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 등을 통해 극장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Sync Next 23에서 공연되는 〈물질〉은 코끼리들이 웃는다의 공연 중 야외에서 공연된 프로덕션을 극장 작업으로 전환하는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이 직조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점을 결국 보게 될까, 믿을 수 있게 될까.



뻔한 곳을 향해 걷다

그러면 사랑 얘기는 누가 하지

글. 허영균
〈그러면 사랑 얘기는 누가 하지〉 드라마투르그, 공연예술출판사 1도씨를 운영한다.

#1

새로움을 기대하는 곳에서 가장 멀어져야 할 것은 익숙함일 것이다. 익숙하고,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것, 눈을 돌리고 귀를 열면 어디에서나 보이고 들리는 그런 이야기. 대중성과 실험성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장르의 아티스트 12팀을 만날 수 있는 Sync Next 23이라면 특히 그렇다. 무용, 연극, 오페라, 뮤지컬, 국악, 미디어아트, 일렉트로니카, 인디, R&B, 트로트와 록, 스트리트 댄스, 마임, 설치미술까지 열거하기도 숨 가쁜 장르들의 트렌디한 예술 실험에 등장할 새로움은 무엇이며, 말 못 할 이야기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서사무엘과 지후트리는 Sync Next 23을 통해 처음 만났다. 뮤지션 서사무엘은 프로듀싱, 비트 메이킹, 연주를 아우르는 싱어송라이터다. 함께하는 지후트리는 '수화 아티스트'다. 수어로 음악과 노랫말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어 그림을 그린다. 경계를 두지 않는 다채로운 협업을 진행한 바 있고, 장애를 개인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신진여성문화인상을 받았다. 서로의 이전 작업과 예술 세계를 더듬어 가던 이들은 다소 모험적인 선택을 한다. 새로운 것을 위해 익숙한 것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 〈그러면 사랑 얘기는 누가 하지〉의 출발이다. 너무 거대하고, 너무 자세한 것, 우주적으로 공통적이면서, 모래알보다 개인적인 것, 이 특별한 그리고 진부한 사랑 이야기를 기꺼이, 기어코 해 보기로 한다.

#2

흔하고 뻔한 이야기는 서사무엘의 음악 약 14곡이 서사의 중심을 이뤄 전개된다. 다양한 사랑의 형태, 사랑의 형식, 사랑이 나고 죽음을 노래하고, 이 노래를 지후트리가 수어로 받아 표현한다.

'Sandwich'
사람들 말속에서 뼈가 느껴지네
시기 질투의 매는 물론 아프긴 해도
누군간 너에게 같은 걸 느끼기에
묻어두기로 해 텅 빈 맘속에
I know we're all so lonely
매일 밤
다음 아침이 되면 또 저 사람들 안에
치여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야
누구에게 나 힘든 건 같아
맘속 깊은 우울함은
점점 익숙해질 테니
숨 들이쉬고 묻어두기로 해
지나친 행동에 상처가 늘기도
누군 성공을 위해 너를 밟기도
하지만 분명해
우리도 누군가를 다치게 해
맘이 흉지게
But I know we're all so lonely

외로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생겨날 자리를 만들어내는 감정이다. 특정한 타자가 없을 때의 개인, 불특정한 타자들에 둘러싸인 '나'의 노래가 망망대해 같은 사랑 이야기로 떠난다. 이야기는 개인에서 타자로, 타자에서 공동체로 확장된다.

'창문'
작년 이 창틀 밖을 혼자 보던 널 처음 본 이래 올해도 같은 색으로 물든 은행잎들이 팔랑거려 빨간빛으로 되돌아보면 그때부터 이미 난
It was you (in my mind)
It was you (in my mind)
It was you (in my mind)
It was you (in my mind)
작년 이 창틀 안 숨죽여 울던 넌 혼자인 게 더 익숙했던 터라 더욱 너 아닌 건 믿는 데에 서툴러서 확신은 없어도 우린 너무 비슷했어
It was me (in your mind)
It was me (in your mind)
It was me (in your mind)
It was me (in your mind)
Relationships they could be as strange as the whether

무대는 두 아티스트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양쪽으로 배치된다. 모두 등 뒤에 스크린을 둔다. 서사무엘의 노래와 지후트리의 수어 퍼포먼스가 교차되며 시각 언어와 청각 언어가 서로를 비추듯이 관객에게 전달된다. 서사무엘과 함께 기타·드럼·피아노로 구성된 밴드가 무대에 선다. 지후트리의 수어 퍼포먼스를 풍성하게 할 무대 장치도 예정돼 있다. 또한 우열도 높낮이도 없는 사랑처럼, 수어를 발화되는 언어의 보조 수단으로 삼지 않고자 했다.

공연까지 이제 약 두 달. 예측할 수 없음을 과정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간다. 결정되지 않은 것이 아직 훨씬 많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한순간뿐일 모호한 것. 이 공연에서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결론이 있을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주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사랑 얘기는 누가 하지〉는 사랑이라는 어떤 습성, 사랑이라 여기게 하는 현상들을 다양한 관계와 상황 안에서 조망하며 그 주저함을, 머뭇거림을 음악과 수어로 표현한다.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엮을지, 관객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사랑 얘기는 누가 하지?
누구나,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면 언제나.

09

서사무엘, 그의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글. 조혜림
PRIZM음악 콘텐츠 기획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음악 관련 영상과 라이브, 브랜드 협업, 칼럼, 인터뷰 등을 통해 아티스트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가끔 심사와 평론을 한다.



"누군가 말 걸 때 세상 깨끗한 눈으로 먼 산을 보고 싶어." 서사무엘의 2집 앨범 〈UNITY II〉의 수록곡 'Jazz in my'의 가사다. 그는 새로운 세상, 정신없는 사회 속에서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고 깨끗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는 뮤지션이다.

2013년 첫 번째 EP 앨범 〈Welcome To My Zone〉으로 데뷔한 서사무엘은 'Vibe', 'Kafka' 등 싱글을 발매하며 매번 다르지만 자신만의 정체성을 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특유의 영민함으로 신scene에 신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2015년 데뷔 앨범 〈FRAMEWORKS〉가 한국대중음악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장을 새긴 그는 반년도 되지 않은 2016년 〈EGO EXPAND(100%)〉를 통해 성실함과 솔직함, 성장통을 자기만의 음악을 통해 드러내며 꾸준히 존재감을 돋보였다. 이후 세 번째 정규 앨범 〈The Misfit〉을 발매했다. 정규 2집으로부터 3년 만에 나온 이 앨범은 전곡의 작사·작곡·코러스·편곡·악기 연주를 도맡았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툭툭 가사를 던지는 듯한 창법은 좀 더 견고한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서사무엘의 정체성과 키워드는 '네오 소울Neo soul'이다. 방법론적으로 장르에 접근하고 연구한 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어느덧 자신이 즐겁고, 듣고 싶고, 온전히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네오 소울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에 집중한 솔직하고 개성 넘치는 가사를 썼다. 그의 노래는 랩도 보컬도 아닌 중의적 경계에 서 있다. 이것은 노래처럼 흥얼거리는 싱잉 랩과도 다르다. 랩의 플로우에 착안한 도전적인 음절의 매치, 다양하고 세밀한 세션 배치는 기존의 네오 소울을 넘어 다양한 요소에 빠르게 녹아들고 화합하는 '서사무엘'이라는 새롭고 유연한 장르를 탄생시켰다. 그저 해외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한국인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네오 소울의 선구자로서 대중에게 새로운 음악과의 화합을 권한다.

치열하게 자신과의 외로움과 싸우고 자기만의 심연 속에서 고민하며 에세이 혹은 일기 같은 음악을 하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아라는 틀을 벗어던지고 더욱 폭발적인 에너지와 생명력을 뿜어내기 시작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아라는 껍데기에서 탈피한 그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세상을 유영한다. 자유로워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활 양식과 행동, 삶의 태도,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상을 세상에 공유한다.

몇 년 전 나는 그를 직접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는 문화가 너무 소비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공식화된 작업이 많아 그걸 앞장서서 깨부수고 사람들에게 다양함을 전하는 문화 매개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자신의 온몸을 수놓은 제비꽃 타투의 꽃말을 따라 겸손 겸양한 삶을 살고 싶다던 그는 사람이 만든 것들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세상을 꿈꾼다. 서사무엘이라는 아티스트가 만드는 음악, 그리는 세상처럼 그가 한 시대를 공유하는 모든 대중의 음악적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잠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위태롭고 인위적인 세상의 자극과 단절을 도모하자. 곧 그가 만들어낸 단순하고 정직한 세상에서 삶의 탁수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10

지후트리, 손으로 연결한 세상

글. 편집부
사진. 김신중

음악과 노랫말에 수어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수화 아티스트'. 가족이 후천적 장애를 겪게 되면서 자연스레 장애에 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고민하면서 수어를 바탕으로 한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모두와 손으로 소통한다. 수어로 이야기를 건네고, 그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 농인과 청인을 연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벽 없이 소통하기를 꿈꾼다.

11

우리가 이날치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히히하하

글.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그렇다고 멈출 수 없다', '음악열애',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음악', '밥 딜런, 똑같은 노래는 부르지 않아' 등 책을 썼다.

한국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 역사는 이날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장르의 음악 가운데 이날치만큼 국내외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끌어낸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치를 크로스오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날치는 스스로 크로스오버라고 정의하지 않고 얼터너티브alternative 팝 밴드라 부른다. 그럼에도 이날치 음악에 배어 있는 전통음악의 어법을 완전히 소거하기는 불가능하다.

돌이켜보면 1993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발표한 정규 2집 수록곡 '하여가'의 태평소 연주가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그 전에는 김태곤·백순진·서유석·송창식·양병집·정태춘을 비롯한 포크 뮤지션들이 민요와 전통음악 어법을 활용한 곡을 발표해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김수철·김영동 등의 작업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민중가요에서도 적지 않은 시도가 이어졌다. 이른바 퓨전 국악의 역사도 오래됐다.

하지만 김덕수 사물놀이나 공명·바람곶·사계·슬기둥·푸리를 비롯한 전통/창작 국악집단 가운데 누구도 이날치만큼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두번째달·블랙스트링·잠비나이처럼 전통음악의 방식을 가미해 호평받은 최근의 음악인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이날치는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였다. 이날치를 모르는 사람조차 "범 내려온다"는 정규 1집 〈수궁가〉의 타이틀 곡 '범 내려온다' 후렴구 정도는 어렵지 않게 흥얼거리거나 한 번은 들어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날치가 한국관광공사의 요청을 받아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함께 찍은 영상의 조회 수는 대개 5천만 회에 육박한다. 다수의 예능과 광고에도 출연했으니 말 다했다.

이날치가 왜 인기를 끌었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날치를 좋아했는지를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날치는 한국 전통음악을 활용한 음악이 얼마나 '힙' 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점이 되었다. 사실 그것이 특정 멤버 혼자 단숨에 만든 결과는 아니었다. 이날치의 음악감독 장영규가 그동안 대중음악·연극·영화·무용을 오가며 다양한 장르를 뒤섞고 전복시키며 작업해온 시간이 쌓이고 쌓여 도달한 결과물이고, 소리꾼 신유진·권송희·이나래·안이호가 전통음악계에서 벌어진 다양한 시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축적한 감각과 이해가 있어서 가능한 결과물이기도 했다. 다른 뮤지션 역시 이력이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이날치의 음악감독 장영규는 인터뷰에서 "이날치 음악을 만들 때는 보통 제가 연주자들하고 리듬이나 패턴들을 만들어 놓고, 소리꾼 4명이 모여서 거기에 같이 할 때 좋을 만한 대목을 찾기 시작해요. 그걸 찾기 위해서 판소리 다섯 바탕을 다 돌릴 때도 있어요. 판소리를 편곡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날치를 하면서는 작곡이라고 생각해요"라며 기존과 다른 작업 방식을 소개했다. 크로스오버 음악은 대개 전통음악이라는 재료를 놓고 이 재료를 어떻게 섞고 변형할지 고민하며 만드는데, 이날치는 반대로 작업함으로써 개성과 차이를 만들어냈다. 원본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시도였고, 다름을 보여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영규의 믿음처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 결과 이날치의 음악은 이날치만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세상에 왔다. 히트곡이 나오고, 한 장의 음반이나 뮤지션이 큰 인기를 끌면 쉽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세상에서 이날치는 좀처럼 따라 할 수 없는 음악을 만들어냈다. 인기를 끌기도 어렵지만 독창적인 음악으로 인기를 끄는 일은 더욱 어렵다. 열린 마음도 필수다. 만약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과 철학을 갖추지 못했다면 자신만 만족하는 작품을 내놓고 사라졌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날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치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림길이 있었을지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정규 음반을 발표한 후 이날치는 수많은 방송과 공연을 수행했다. 올해 초에는 보컬 이나래와 신유진이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현재 이날치는 2집 〈물밑〉(가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Sync Next 23 〈히히하하〉에서는 곧 발표할 바로 그 신작들을 선보인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LG아트센터 서울에서의 공연 이후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만큼 완성본에 가까워졌을 것이 분명하다. 새 음반 수록곡을 먼저 만나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멤버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얼터너티브를 지향하는 이날치의 태도 그 자체로 인해 이번 공연은 Sync Next 23 무대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1집의 성공이 부담스럽지 않을 리 없는 상황에서 이날치는 안전한 길을 가는 대신 새로운 이야기와 음악으로 돌아온다. 이날치가 또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지는 그들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판소리 다섯 바탕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선택하고, 예전과 다른 창법을 시도한다는 소식은 이날치가 어떤 팀인지를 새삼 분명히 확인시킨다. 생명의 근원지인 물밑을 찾아가는 천문학자의 이야기라는 신작 정보는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환란에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에 대한 이날치의 발언처럼 다가온다. 공들여 쌓은 탑을 떠나 다른 길을 떠남으로써 자신들의 가능성을 확장할 뿐 아니라, 공식 같은 마케팅의 수순을 밟지 않으려는 의지, 그리고 예술가로서 어떤 이야기를 던질까 고민하는 면모는 한국 예술계에 귀한 자산이다. 작품을 만드는 태도로서만이 아니라 작품을 무대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도 얼터너티브를 실현하는 이날치의 무대에 충격과 감동을 기대하는 일이 당연하다.

우리 모두의 양면성에 대해 왜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글. 이소영
아티스트 에이전시·공연 기획사 유어썸머 대표이자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싱어송라이터·소설가·에세이스트·감독이자 기획자 등 자신의 쓰임이 발견되는 분야면 어디든 거침없이 뛰어들어 작품을 만들어내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이랑. 그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신을 어려워하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낭독하고 부르는 것이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왔고, 슬픈 노래를 부르다 웃고 떠들어야 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두려운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렇게 조금씩 본인의 위치를 뒤편으로 이동시킨다. 무대 뒤편의 기획자로, 화려한 영상의 뒤편에 남는 감독의 자리로, 그렇게 밝은 조명의 그림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 그이기에 Sync Next 23을 통해 한 번만 더 무대로 올라달라는 제안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광화문광장 시위 무대를 버텨낸 음악가가 그 옆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며, 이랑은 친구 모어도 불러들여 무대를 만들게 된다.

〈왜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서 온 모어의 낭독으로 시작된다. 안무가·드래그 아티스트·배우이면서 작가로 살아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모어. 그는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색으로 반짝이는 자기 모습이 너무 좋다. 화려한 화장을 하고 발레 의상을 입으며, 가슴 속 넘치는 뜨거운 감정들을 무엇도 의식하지 않고 거침게 내뱉는다. 있는 그대로, 거짓이나 보탬 없는 모습인 터라 무대와 현실의 삶에는 괴리감이 없다. 말들은 글이 되고 시가 되어 그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질문도 던진다. 화려함에 대해. 그 이면의 외로움에 대해. 일상에 대해. 또 예술과 그 예술을 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질문 '왜 친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이랑과 모어의 일상을 담을 무대는 각자의 방으로 형상화되며 평행선을 그리듯 좌우로 나눠 배치된다. 둘의 사이에는 무대 중앙을 비닥부터 천정까지 가르는 하얀 천이 걸리고 그 위를 수많은 글자가 가득 채운다. 그 글자들은 이랑과 모어가 주고받는 대화와 노래, 시와 낭독으로 둘의 사이에 있는 중립적인 공간에 실시간으로 영사돼 흐른다. 무형의 말들이 활자의 옷을 입고 관객에게 직접 전달된다. 모든 대사와 노래와 낭독을 그대로 담은 글은 이랑과 모어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독백을 보여주기도 한다. 노래도 되고 대화도 된다. 활자로 표현되는 말들로 인해 무대 위 극은 한 권의 공동 집필된 산문시처럼 보인다.

무대에는 블랙 큐브가 놓일 예정이다. 이를 직접 옮기며 회장대로, 의자로, 여러 소품으로 사용한다. 다른 듯 같은 공간에 있는 둘은 함께 이야기하기도, 서로 주고받기도,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독백하기도 한다. 이랑은 노래하고, 모어는 춤을 춘다. 모어는 점점 화려해지는 모습을 선보이고, 이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인 무채색의 공간에 멈춰 있다. 이랑의 노래와 움직임은 모어에 비교해 점점 색이 바래는 느낌이 들지만, 애잔하고 따뜻하다.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려해지는 모어는 반짝이고 생동감 넘치는 색을 입지만 어딘가 쓸쓸하고 외롭다. 모어는 그간 쓴 수많은 글을 가져오고, 이랑은 그간 노래한 곡 중 어울리는 노래를 부른다. 또한 이랑은 이 무대를 위해 신곡도 들려줄 예정이다. 이랑의 작업에 늘 함께한 이대봉이 음악감독으로 함께 참여해 곡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60분간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책을 쓰듯 써 내려간 두 사람은 이제 관객과 함께 마지막 뒤풀이를 한다. 완벽하게 치장을 마친 모어는 관객의 손을 이끌고 공연장 밖으로 나가 신나는 웃음을 터뜨릴 예정이다. 이랑 역시 조용히 그 길을 따라 관객과 함께 이야기하며 한 잔을 나눌 것이다. '하고 싶은 일'과 '살려고 하는 일' 가운데 이랑과 모어에게서 발견된 이야기는, 주목받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고, 어울리고 싶지만 떠나버리고 싶은 우리 모두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글. 조혜림
PRIZM음악 콘텐츠 기획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음악 관련 영상과 라이브, 브랜드 협업, 칼럼, 인터뷰 등을 통해 아티스트를 알리는 일과 심사·평론을 한다.

12
이랑은 타인을 설득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이랑의 공연을 보러 갔던 2021년 겨울날을 기억한다. 그는 반짝이고 여린 눈송이 같기도, 눈 속에 피는 강한 에델바이스 같기도 한 귀걸이를 하고 수많은 들꽃 속에서 노래를 시작했다. 그날 그는 몸이 아파 겨우 공연한다고 했다. 그런 모습은 녹아 살아질 것 같은 눈 같기도, 하지만 꿋꿋하게 다시 잎을 펴내는 꽃 같기도 했다. 처음엔 위태롭게 그를 바라보다 어느덧 그런 시선이 실례로 느껴졌다. 그는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하며 꿋꿋하게 등을 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다.

얼마 후 그의 언니가 세상을 떠났고, 그는 의식에서 여성에게 허락되지 못하던 완장을 찼다. 가부장으로 만연한 장례식에서 그는 바지 상복을 입고 완장을 차고 춤을 췄다. 언니가 생전 아끼고 사랑했던 알록달록 공주 왕관과 사넬 귀걸이를 올려두고 그가 활동하던 댄스팀과 함께 가장 언니다운 마지막 날을 보냈다. 이랑은 언제나 진솔하고 적나라하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

2012년 이랑은 1집 〈욘욘슨〉이라는 앨범과 함께 세상으로 튀어나왔다. 그의 과거 습작 같이 생활 속에 우연한 영감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모이고 다듬어져 완성된 이 앨범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노래라는 것의 기본 문법을 부수고 속닥속닥하고 싶은 말, 생각나는 말들을 주절거리는 것 같다. 평범한 듯 비범한 그의 개인적인 유년의 기록은 웰메이드 블랙코미디처럼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이런 독특한 노래들이 어느덧 내 기억 속에서 잊힐 즈음 우연히 독립서점 유어마인드에서 그가 그리고 쓴 '이랑 네컷 만화'[2013]와 '내가 30代가 됐다'[2015]라는 만화책을 발견했다. 그는 음악가이지만 영화감독이기도 하고 만화가이기도 하고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다. 영화감독으로 〈유도리〉, 〈변해야한다〉 등을 만들었으며, 웹드라마 〈출출한 여자〉, 〈게임회사 여직원들〉의 시나리오와 제작에 참여하며 동시대 사람들에게 다양한 통로의 연대를 조성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 이 사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 인간관계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하고 탄식하고 기뻐하고 분노한다. 하지만 이런 대화들은 하나의 형태로 좁혀지지 않고 쉽게 휘발된다. 좋고 의미 있는 비판과 개선을 위한 신념이 가득 찬 목소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의미 없이 소비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랑은 그런 목소리들을 모아 노래를 만든다.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노래의 가사로 자신의 직설적인 생각과 비판, 논의돼야 할 것들을 문장과 음악으로 남긴다. 그는 자신 속에 있는 노래를 찾고 꺼내기 위해 가족, 연인, 개인의 고민과 슬픔, 분노를 솔직하게 내뱉는다. 어찌 보면 이 노래들은 그의 일기이자 고백이며 유언으로, 깊은 내면을 발가벗겨 세상에 전시한다. 또 그의 2집 〈신의 놀이〉를 들으며 인생의 자취를 따라가본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를 바라보기 쉽지 않을 만큼 적나라한 이야기와 사회를 향한 질문은 마치 우리의 진짜 삶을 목도하고 있는 신을 마주한 듯한 기분도 든다.

이랑의 음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당황한다. 그의 음악은 정교한 테크닉이나 뛰어나고 우렁찬 가창력이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며, 그의 습작같이 순간순간 동요되는 스스로의 마음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음악은 가볍지 않다. 화려한 기교나 온몸을 떨게 하는 가창력 대신 가사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고, 곡을 듣는 자들에게 깊게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는 사려 깊은 이야기꾼이다.

이랑이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려 깊은 노력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 년 가까이 이어온 '신곡의 방' 프로젝트에서 다시금 이해할 수 있다. 신곡의 방은 매달 새로운 게스트 아티스트를 모시고 현장에서 곡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다. 첫 번째 김목인을 시작으로 키라라·김일두·김사월 등 자신의 음악을 통해 희구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자신의 작업 방식을 모두 까발리고, 살면서 채집한 단어와 이야기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랑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작업 방식과 날카로울 만큼 곧은 신념이 뚜렷하게 보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솔직히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엄청난 용기와 영겁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랑은 명징하게 자신의 삶을 직조해 대중에게 순수한 음악을 향한 의지를 내보인다.

인정투쟁. 이랑은 타인을 설득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한 사회에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믿음이 사라진 세상, 환대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그의 노래는 자연스럽게 페미니즘, 군사정권, 식민지, 전쟁, 가난, 부조리,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된다. 끊임없이 믿음이 사라지고 서로를 증오하는 세상 앞에 그는 3집 〈늑대가 나타났다〉를 발표했다. 환대받지 못한 마녀, 폭도, 이단, 늑대의 모습으로 울부짖고 차별에 대항하고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다. 언제나 잔혹한 우화처럼 읊조리던 그의 목소리는 '늑대가 나타났다'에서 좀 더 고요하게 우리의 편견과 두려움을 죄어든다. 그리고 그 뒤엔 불합리함에 맞서는 LGBTQ의 합창을 통해 희열감 있는 연대의 확장을 표현한다. 이것은 저항의 노래이고, 견고한 연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이랑은 끊임없이 맹렬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과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지금,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환대하고 기억하며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08/08 이랑×모어 〈왜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영화 〈모어〉 스틸컷

13
내 친구 모어를 소개합니다

글. 김연임
각종 문화예술 현장에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일해왔다. 호기심을 밥으로 애정을 반찬으로 문화예술계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서울무용센터에서 발행한 웹진 [춤:in] 편집장으로 5년간 잡지를 만든 바 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친구 모어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실, 모어를 소개할 이름은 너무 많아요. 발레리나(노), 안무가, 드래그drag 아티스트, 뮤지컬 배우, 작가, 화가… 하지만, 모어는 종종 이렇게 자기소개를 시작하곤 합니다. "모어, 모지민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살고 있습니다."

모어는 흰밥이나 짜파게티에 엄마표 파김치 얹어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멋진 고양이 모모와 살고 있어요. 모어는 '털 모毛'에 '물고기 어魚', 털 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털 난 물고기는 세상에 없고, 낯설고, 이질적이고, 이 사회의 어디에도 속하기에도 애매한 존재인 모어를 이르는 이름입니다.

모어는 발레를 전공했어요. 집을 나서면 논과 밭이 있는 먼 남쪽 마을에서 태어났고, 가족 모두 발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의 남다른 움직임을 눈여겨본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무용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발레를 전공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그의 모습은 주변 친구들의 놀림과 차별의 대상이었어요. 그는 항상 외톨이라 느꼈고 슬펐지요. 서울이라는 큰 도시, 그리고 대학은 다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재미난 생활을 기대했던 대학교 신입생 모어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학교의 남자 선배가 그의 뺨을 때리며, "여성성을 버려!"라고 말했거든요.

방황하던 모어는 이태원의 어느 클럽에서 '드래그 쇼'의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드래그의 매력에 빠진 후, 개성 넘치는 메이크업과 자신이 직접 고르거나 만든 독특한 의상, 그리고 클래식 발레를 전공한 그만의 몸짓으로 자신만의 쇼를 만들며 마음 안의 열정과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은 사실 고되고 험한 일이기도 했어요.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취한 사람들을 뚫고 도시의 뒷골목을 지나 지친 몸과 마음, 무겁고 큰 가방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으니까요. 또 가끔은 아무도 그의 쇼를 보지 않고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곤 했죠.

20년 동안 계속된 그로테스크하고 신비로운 모어의 드래그 쇼는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는 레퍼토리 하나하나를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고, 이 아름다움과 예술성에 반한 사람들이 모어를 이곳저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궁금해했고, 그의 세계에 감탄했어요. 그의 사진과 의상·영상으로 전시와 퍼포먼스를 했고, 그의 시와 에세이를 담은 '털 난 물고기 모어'2022라는 476페이지 분량의 두툼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4년 동안의 긴 촬영과 편집을 마친 〈모어〉2022라는 영화도 세상에 나왔지요. 그의 삶을 담은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만 1만 명이 넘는 관객이 봤고, 세계 방방곡곡의 영화제에서 실로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2021년 부산국제영화제, 2022년 뉴욕아시안영화제, 파리와 런던 한국영화제 등에서 초대받았고, 제42회 황금촬영상, 제4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제58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모어는 8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S씨어터에서 Sync Next 23 이랑×모어 〈왜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어와 이랑은 단짝 친구입니다. 서로 영감과 위로, 삶을 주고받는 친구이지요. 이 둘의 공연은 2017년 〈신의 놀이〉라는 낭독회 이후 6년 만이고요. 이번 공연은 드래그와 시와 낭독과 노래가 함께 하는 매우 새로운 형식의 총체극이랍니다. 하지만 형식을 넘어,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두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다는 점이 이 공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연의 제목 〈왜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하는 않는 것인가〉는 작년 영화 〈모어〉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영할 때 남긴 시의 한 구절이랍니다. 국회 상영회에 그를 초대한 장혜영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은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모어에게 물었습니다. "미래에 친구가 될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모어는 말합니다. "남자, 여자 따로 없어. 그저 인간만 있을 뿐.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 느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14

너드커넥션, 혼란한 세상에 몰아친 따뜻한 파도

글. 조혜림
PRIZM음악 콘텐츠 기획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음악 관련 영상과 라이브, 브랜드 협업, 칼럼, 인터뷰 등을 통해 아티스트를 알리는 일과 심사·평론을 한다.
사진 제공. 유어썸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아름다운 공감, 눈빛과 체온의 따스한 교차. 너드커넥션은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이라는 지향점으로 어렴풋한 추억 같은 청춘과 접속한다.

2012년 연세대학교 록 밴드 동아리 '메두사'에서 레드 핫 칠리 페퍼스Red Hot Chili Peppers와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Rage Against The Machine 등 하드록을 노래하던 서영주는 비슷한 시기 한 학번 선배인 기타리스트 최승원과 같은 팀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13년 베이시스트 박재현이 신입 기수로 동아리에 들어왔다. 졸업을 앞둔 세 사람은 음악이 없는 우울한 미래를 그리다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다. 이후 드러머 신연태를 정식 멤버로 영입했고,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에서 유일하게 재밌던 음악은 어느덧 진지한 열정과 깊어진 신념이 더해져 무언가에 푹 빠져 외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한 유기체를 형성했다.

너드커넥션의 음악을 들으면 클래식한 20세기 브리티시 록 밴드의 노스탤지어가 피어오른다. 초창기 그들의 노래는 모두 영어로 쓰였던 만큼, 그들의 뿌리이자 바라는 행보가 무엇인지 뚜렷이 보인다. 너드커넥션은 밴드의 첫 정식 무대인 2018년 EMERGENZA 세계 밴드 대회에서 국내 우승을 거뒀고, 독일 타우베르탈 페스티벌Taubertal Festival에 출전했다. 세계 밴드들과의 경쟁과 소통 속에 9위를 차지한 그들은 2019년 첫 EP 〈TOO FAST〉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밴드 활동의 서막을 열었다.

멤버 중 음악을 전문으로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만큼 그들에겐 무한한 기회와 경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고 도전의 경계가 없어졌다. 너드커넥션은 언어와 생각, 영감을 자유롭게 쏟아내고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세상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아련함은 그들이 꿈꾸는 음악적 유토피아가 곧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게 된다.

양면적인 세상에서 그늘 속에 가려진 추악함을 외면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탐구하는 밴드. 그들의 음악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날카롭게 파고들고 꿈결처럼 물들어 영원히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 그들이 태곳적부터 품어온 따뜻한 환대와 열정은 분명 큰 파도처럼 몰아쳐 우리 모두의 마음을 휩쓸고 설레게 할 것이다.



15

Z1, 예술과 매체를 연결하는 디지털 신호

글. 편집부



현지원z1은 공간, 소재, 미디어의 물리적·개념적 탐구를 통해 관계와 문화, 환경 등을 재해석하는 경계 없는 미디어 아티스트다. 작품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다양한 시너지를 발생시키고자 노력하며, 작품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기를 꿈꾼다. 2019년 데뷔해 개인전 8회, 단체전 45회 참여했으며, 다양한 공연 장르의 아트디렉터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순수미술과 금속공예를 전공했고, 현재는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여러 작업을 펼치고 있다. 관객과 작품을 매개로 삼아 소통하고 발전하기를 추구하며, 열린 스토리와 개성 있는 색채를 가진 작품으로 자신만의 미적 가치관을 구축하고 있다. 2022년 서울라이트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로 선정돼 《우주 백패킹》 전시에 프로젝션 매핑 작품 〈SOME YARD 22.01: 제곱야드의 어떤 정원 22.01〉을 출품했고, 2021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미디어 타워에 〈The Journey〉를 전시했다. 그의 작품 〈Enrich〉2022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장 작품으로 본사 건물 로비에 상영되고 있다.

관객과 공연 문화가 어우러진 작은 정원

TERRARIUM

글. 이소영
아티스트 에이전시·공연 기획사 유어썸머 대표이자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가장 먼저 금지되는 공연 문화에 대해 수많은 예술가는 우리의 일이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릇되고 금기시되고, 겸손해야 하는 역할로만 등장해야 하는 것이 예술가의 몫인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기쁜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인가. 공연 무대를 통해 관객이 받는 감정이, 오로지 평화로울 때만 함께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맞는가. 세상이 어지러울 때면 등장하는 '공연 문화 금지'라는 보여주기식의 뻔한 답이 오답이라는 것을 증명해보자. 이 작은 질문과 투지로 공연은 기획됐다.

무형으로 흐르는 음악은 무대를 만나 모양과 색을 갖춘다. 관객에게 시청각적으로 먼저 다가간 뒤, 감동과 전율을 전달해 감정의 기억을 만든다. 그렇다면 그 감정의 기억을 모아서 보여주면 어떨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쌓아갈 수 있을까. 질문만 가득했던 기획은 8월, 세종문화회관 컨템퍼러리 시즌 Sync Next 23에서 〈TERRARIUM〉이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실현된다. 시작은 질문투성이였고, 과정은 꽤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오로지 공연장에서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공연자들조차도 결과를 알 수 없다.

'테라리엄terrarium'은 스스로 선순환해 살아가는 미니 생태계로, 작은 정원을 말한다. 즉, 관객의 감정과 공연 문화가 서로 순환하며 살아가는 문화 생태계를 의미한다. 테라리엄의 모습을 한 미술로 꾸며질 무대 곳곳에는 작은 LED가 설치된다. LED에는 관객이 보내는 감정들을 자료화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미디어아트가 등장한다. 이 미디어아트를 통해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공연인데, 참여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관객은 공연 전 제공받은 링크에 접속해 공연을 보며 느끼는 감정과 가장 닮은 이미지를 선택만 하면 된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취합된 감정은 미디어 아티스트에게 전송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연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정원이 조금씩 완성된다. 공연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니 완성된 디지털 정원의 이미지도 매번 바뀐다. 다수의 관객이 선택한 이미지가 더 많이 표현된다. 공연을 보는 관객이 주로 어떤 감정을 선택할지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가 된다.

무대의 주인공은 밴드 너드커넥션이다. 어지러운 세상 속 따뜻한 음악을 노래하는 밴드 너드커넥션은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한 세트리스트를 준비했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할 예정인데, 1부에서는 테라리엄의 완성을 위한 과정, 2부에서는 테라리엄이 완성된 후의 공연이다. 1부에서는 관객에게서 감정의 소요를 끌어내도록 멘트도 거의 없이 음악으로만 소통한다. 관객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주곡 위주의 새로운 세트를 추가해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고를 시간도 충분히 제시할 예정이다. 오로지 음악만이 있는 1부를 통해 관객의 감정 전달이 완성되면 무대는 거대한 테라리엄 그 자체가 돼 감정의 미디어아트로 가득 찬다. 그렇게 관객이 선택해 완성된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밴드와 관객이 서로 소통하는 신나는 2부 공연이 펼쳐진다.

여기에 주로 '소통'이라는 주제로 작업해온 미디어 아티스트 z1이 함께한다. z1은 2022년부터 너드커넥션 단독 공연의 미디어아트를 담당하며 밴드의 곡을 영상으로 해석해 보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오랜 공동 작업으로 너드커넥션의 음악과 z1의 미디어아트는 이미 곡마다 정해진 스타일이 존재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모두 새롭게 제작한다. 실시간으로 취합된 관객의 감정을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아트로 완성하는 것도 z1의 역할이다.

공연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관객의 몫이다. 무대에서는 이들 역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든 다양한 예술 형태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다. 분노를 노래할 수도 슬픔을 위로할 수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받는 것도 표현하는 이와 받아들이는 이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금지'라는 단순 논리에 쉽게 멈추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그것이 오답임을 증명해 낼 테니까.

16
광장의 울림
광광, 굉굉

글. 편집부
사진. 김신중



성시영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으로 피리와 태평소를 맡고 있으며, 음악그룹 나무의 멤버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원으로 활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악기와 자음 만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새로운 미음을 간직하며 변화 앙이 풍경게 연주한다. 배움이 멈추지 않고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또 돌아갈 수 있는 무대에 서는 기회를 통해 연주에 깃는 책임감을 체감하고 있다. 나아가 음에 마리 끈기 용기를 줄 수 있는 연주자를 꿈꾼다.

이일우
경북 나이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수석악장을 지냈다. 젊바나이 '지워진 곳에서'로 제20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노래 부문에서 수상하고 2019년 벌베히 음년 '순간'으로 제17회 한국대중음악상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연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예전부터 피리를 잡는 연주는 좋았지만, 언제나 동시대성을 생각하며 변화했는 음악을 하고 있다.

황민왕
타악 연주자로 음악그룹 나무와 블랙스트링에서 활약하며, 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 이수자다. 국악방송에서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를 진행하고 있다. 엡회전단 'Hue 광대의 음악감독으로 2013년 KBS 국악대상 연주단체상을 받았고, 블랙스트링 〈Karma〉로 제17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음반'부문, 〈Mask Dance〉로 같은 부문에서 수상했다. 그의 시작은 전통음악이었으나 현재는 '음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느낀다. 전통이라는 기서를 잃게두다 보면 다른 형태를 두려워하게 되지만, 여러 예술가와 만나며 맞고 틀린 것이 아닌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을 생각하며 음악을 하고 있다.

김지혁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피리와 생황을 맡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원으로 예술전문사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제17회 KBS 국악대경연 관악 부문 장원을 차지했다. 어릴 적 전통을 잘 하기 위해 고민이 크던 그 모습 또 돌아갈 수 있는 책임감을 주어진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과 음악적 표현에 관한 고민이 크다.

국악을 중심으로 동시대와 소통하는 연주자 성시영·이일우·황민왕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서 활약하는 김지현·윤지현이 합을 맞춘다. 민중의 목소리가 모이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시민의 휴식과 축제의 장소가 되기까지 광장이라는 공간에 흐르는 과거와 현재를 빛과 소리로 잇는다. 〈광광,굉굉〉은 창작과 즉흥을 토대로 한 국악 사운드에 미디어아트가 결합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 다섯 연주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SYNC NEXT 23에서 선보일 〈광광,굉굉〉

성시영 솔직히 처음 섭외가 들어왔을 때, "싱크 넥스트는 실험이고 파격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틀을 깨고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라는 요청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주자는 이일우와 황민왕이었다. 각자의 색깔로 활발히 연주 활동을 하는 두 친구와 작품을 만들면 너무도 즐거운 작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을 대표하는 연주자 김지현(생황)·윤지현(가야금)이 함께하게 됐다. 〈광광,굉굉〉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광장'이다. 광장이라는 장소는 역사적으로나 동시대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에서 자유를 외치고, 때론 소리 없이 침묵한다. 차별 없이 동등함을 느끼며, 우리의 가치를 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제 그 넓은 광장이 극장으로 들어온다. 관객 한 분 한 분이 광장의 빛이 되어,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미디어 아티스트 윤제호 작가와 협업하며,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모든 곡을 초연한다. 빛과 소리가 극장을 가득 메울 것이며, 우리의 음악은 광장의 빛으로 가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일우 Sync Next가 열리는 광화문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공연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곳이 광화문광장이라 생각한다. 그때 그 감정, 시끄러움 등을 표현했고, 가장 조용한 소음과 가장 시끄러운 선율을 경험할 수 있는 공연일 것이다.

나의 악기, 맡은 파트와 역할

이일우 평소 연주하던 국악기 피리·태평소·생황, 그리고 일렉기타와 신시사이저를 연주할 계획이다. 흔히 국악과 함께 연주되는 신시사이저라고 하면 화음을 넣어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엔 주로 소음을 담당할 계획이다.

황민왕 타악과 태평소를 맡았다. 전체를 관통할 장단을 구성하고 연주한다. 필요에 따라서 성시영·이일우의 태평소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김지현 우리 전통악기지만 제작 과정이 단절돼 다시 활발하게 연주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생황을 연주한다. 하모니카처럼 들숨과 날숨으로 소리를 내 화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악기다. 이번 공연에선 음색과 음량의 대비가 주요한 음악적 표현 방법이 될 듯한데, 생황의 부드러운 음색으로 작고, 고요하고, 부드러움을 표현하려고 한다.

윤지현 이번 공연에서 가야금 연주를 맡아 화음을 들려줄 예정이다.

성시영 예술감독으로 참여하고, 피리·태평소를 연주하며, 목소리로 출연한다.

나의 예술/음악에 있어서 '동시대성'이란

황민왕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성찰이 곧 동시대성 아닐까. 나의 취향, 생각, 가치관 같은 것들이 내가 하는 예술에 솔직하게 투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투영된 요소들이 작품으로 하여금 관객과 공유되고, 관객은 작품을 통해 예술가를 바라보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상태'가 곧 나의 예술에서의 동시대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지현 지금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 지금을 살고 있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국악기 소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처음 들어도 곧바로 좋은 매력적인 소리나 음악이 아니어도 괜찮다. 시간을 두고 점차 그 소리가 좋아지더라, 같은 것도 좋다. 다른 문화와 개성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시대에 내 음악이 전통이든, 창작이든 그대로 멋있고 어울리면 좋은 것 아닐까.

윤지현 오늘날 현대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음악적으로 공감하는 것. 판소리나 산조를 들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본다. 전통음악에는 아주 좋은 소리, 선율, 소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잘 다듬고 이야기를 풀어낸다면 국악의 동시대성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시영 나의 예술에 있어서 동시대성이란 '창작'이다. 현존하고 전승되고 있는 전통음악은, 과거 어떠한 시기의 창작된 음악이고, 우수하게 보존돼 계승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오는 전통 소리를 보존하되, 이 시대에 맞춰 창작하고 싶다. 또한 지금의 이런 작업이 후대에서 바라볼 때, 훗날 그 시대의 전통으로 기억됐으면 한다.

이일우 현대인과 장르 구분 없이 소통하는 것이 동시대성이라고 생각한다. 예부터 국악이 전통에 머물기보다 현재에 살아 숨 쉬는 음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왔다. 그래서 국악기가 전통음악만 연주하는 것이 아닌 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작품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 사실 전통음악도 그 시대의 치열한 창작물이 아닐까? 그러한 창작정신을 현대에 맞게 발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동시대성이라고 본다.

가장 최근에 벌인 모험이 있다면

김지현 동떨어진 대답일 수 있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웃음)

성시영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에 텐트를 싣고 캠핑하러 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틀간 꼼짝 못 하고 고립된 적이 있다. 안전한 곳에 머무르다 겨우 탈출하긴 했지만… 밤새워 음악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난다.

이일우 잘 다니던 직장을 다시 그만두고 프리랜서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황민왕 평생 꿈꾸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노래를 배우게 됐다. 그 이상의 정보는 나중에 노래를 잘하게 되면 알려주는 것으로!

글. 조혜림
PRIZM음악 콘텐츠 기획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음악 관련 영상과 라이브, 브랜드 협업, 칼럼, 인터뷰 등을 통해 아티스트를 알리는 일과 심사·평론을 한다.

17 모니카, 수만 가지 매력으로 빚은 유기체

삶의 역할이라는 흐름에 맞춰 자신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 단 하나의 존재를 넘어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고, 타인의 마음속 숨은 용기를 만개시키는 영향력. 내가 만난 댄서 모니카는 수만 가지 형용하기 어려운 매력과 올곧은 확신으로 뭉쳐진 아름다운 유기체였다. 그의 춤은 필연적으로 감상하는 이의 마음을 덮친다. 능숙하고 재빠르며 영민한 그의 몸짓은 그저 단단하거나 화려하기만 하지 않고 우리 속에 스며들어 깊은 여진을 남긴다. 춤, 그것은 그저 즐기는 영역을 넘어 위로받고 스며드는 새로운 기쁨과 희열을 주는 세계다.

어릴 때부터 팝핀을 춘 그는 패션 회사에서 직장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패션디자인에 열정이 크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 후 하루 9시간씩 레슨하는 춤 선생님으로 일하며 몸은 우리 머리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움직임을 기억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댄서로서 커리어는 조금 늦었지만, 그의 확고한 재능과 끊임없는 열정은 댄스 신에 선연한 존재감을 새기기 시작한다. 2010년,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크럼프 크루 '몬스터우 팸'의 멤버로 영입된 후에는 러닝머신을 달리듯 그 자리에서 뛰고 또 달렸다. 달리는 도중 그는 다른 세계지만 같은 꿈을 꾸는 립제이를 만나 '모립'이란 댄스 듀오를 결성한다. 삐뚤빼뚤 서로에 맞지 않고 빗나가던 두 사람은 어느덧 자신들이 추상적이지만 같은 이상을 그린다는 것을 깨닫고 최고의 듀오로 거듭난다.

2021년, 모니카를 중심으로 댄스팀 프라우드먼이 결성됐고, 같은 해 엠넷Mnet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개인 역량이 뛰어난 크루이기도 하지만, 모니카의 정교한 리더십과 전략은 존경받는 리더의 표본 같았다. 그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갑옷 같은 리더지만 누구보다 댄스 신의 미래와 동료, 후배들을 생각하는 다정한 선배다. 패션을 전공하던 당시 은사님이 지어준 이름 '모니카', 배우 모니카 벨루치Monica Bellucci처럼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 은사의 선구안은 정확했다. 안무가로서, 리더로서 강한 속성을 지녔지만, 한편으론 섬세하고 정교한 오감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고혹적으로 표현한다. 프리스타일을 출 때 가장 빛나는 그는 춤과 물아일체가 되는 순간 온전한 육체의 주인이자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듯하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성공 이후 영화감독 박찬욱은 직접 그를 섭외해 자신의 단편 영화 〈일장춘몽〉2022에 춤추는 모습을 담았고, 그 인연으로 영화 〈헤어질 결심〉2022의 OST '안개' 뮤직비디오에서 서글프고 아련한 춤을 추었다. 그 후 뮤지션 백예린·수지·자우림과의 컬래버 작업을 통해 가사를 넘어 몸짓을 통해 음악을 해석하고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인 순간인지 깨닫게 해주며 예술가들의 뮤즈로서 다시 한번 빛을 낸다. 그와 함께 작업했을 때 나는 그의 의외로운 소녀스러움과 천진함에 금세 마음이 무장 해제된 기억이 난다. 나는 그가 스스로의 강한 신념을 쌓아 올리며 사회와 타인으로 해쳐지기 쉬운 자기 안의 순진하리만큼 맑은 면모를 꿋꿋이 지켜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최근 싱어송라이터 그룹 라스LAS의 음악과 프라우드먼의 퍼포먼스를 컬래버한 앨범 〈RUN RUN〉을 발표하며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모니카. 그는 Sync Next 23에서 한국 공연예술의 현재를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 더욱 자유롭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그의 몸에는 각각 정의와 불멸, 강직하고 굳세어 굽히지 않고 꾸밈없음을 의미하는 타투가 있다. 또한 동양적인 것에 쉽게 매혹돼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윤회를 믿고, 그 의지는 양손 위에 연꽃으로 남겼다. 강의목눌근인剛毅木訥近仁, 그가 새긴 타투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니카는 어느 장르의 댄스에 갇히지 않고 늘 선을 넘어 부수고 탈피한다. 오랜만에 100%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낯선 공간에서 춤을 추게 된 모니카. 삶의 균열을 스스로 만들어 댄스라는 찰나의 순간을 영원한 기록으로 영유하는 그의 다음 행보를, 뛰는 심장을 안고 기다린다.



08/18 — 08/20 모니카×CIFIKA 〈쓰인 적 없는 시〉



18

씨피카, 인간의 감정을 연금술하다

글. 조혜림

씨피카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우주를 부유하는 듯, 심해를 떠다니는 듯, 어딘가 유영하는 기분이 들다가도 순식간에 온 세상의 소리가 침묵하고 그의 음악과 목소리만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에 봉착한 기분이 든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영역에 울려 퍼지는 전자음악, 씨피카라는 미상의 존재는 한국 음악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적이고도 아름다운 물질이다.

2016년 6월, 데뷔 싱글 앨범 〈OOZOO〉 이후 6개월 만에 발매된 첫 번째 EP 〈INTELLIGENTSIA〉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일렉트로니카 뮤지션으로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전 세계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비주류로 구분짓던 전자음악. 하지만 갓 데뷔한 신에 씨피카로 인해 대한민국의 전자음악은 재평가되기 시작하고, 리스너들의 이목을 끌고 집중을 받기 시작했다. 프로듀싱·보컬은 물론 미디어아트와 다양한 저변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며 혁신적인 활동을 추구해온 그는 첫 번째 EP 〈INTELLIGENTSIA〉를 통해 그만의 언어로 풀어낸 사랑과 혼란, 소통, 두려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타이틀곡 'My Ego'로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노래' 부문을 수상한 씨피카는 2018년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가득 채운 가사와 좀 더 고도화된 사랑에 대한 고찰과 연민, 미래와 우주를 개척하려는 실험 같은 EP 〈PRISM〉을 발표한다. 주술적인 음색과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역행하며 과거와 미래가 뒤엉킨 듯한 그의 음악은 좀 더 카리스마가 생겼고, 한층 공감각적 심상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씨피카는 자신만의 차원을 생성해 그 속에 음악이란 형태의 새로운 언어를 읊어낸다. 그가 사랑하는 작가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작품처럼 그는 자신의 새로운 시도가 기존의 사조를 부수고, 새로운 형질의 무언가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새롭게 태동하길 바란다. 한편으론 이성주의에 반해 욕망과 충동에 충실했던 윌리엄 블레이크와 상이한 과학을 종교처럼 믿는다. 순수하게 탐구하며 본질을 쫓는 과학의 행위처럼 그의 음악 역시 투명하고 헐벗은 초자연적 본질을 쫓아 나아감을 목도하는 자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8년 씨피카는 한국 대표 일렉트로닉 뮤지션으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SXSW' 무대에 섰다. 이를 통해 한국 신의 새로운 흐름과 발전을 알렸고, 이후 미국 투어를 하며 독보적이고도 놀라운 비주얼과 자신만의 세계관을 세계로 확장, 전달했다.

음악이 아니었다면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같은 디지털과 사회 문화적 현상을 연결하는 예술을 했을 거라고 말한 그는 난민 문제를 SF 영화처럼 다룬 김아영의 영상 작품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롯〉2019에 음악으로 참여,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9》 전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아르코미술관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라는 SF 전시에서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하이드로 복스Hydro Vox〉를 펼쳐 보이기도 했다.

최근 3년 만에 발매한 두 번째 정규 앨범 〈ION〉은 세상 모든 감정의 연금술사로 재탄생한 씨피카가 다루는 환희와 좌절, 희망과 사랑에 대한 에너지를 이야기한다. 전기적으로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지게 되는 이온처럼 과학적 판타지 속에 인간의 감정을 분해하고 고찰하며 연금술처럼 새롭게 재탄생되는 회복 탄력성과 사랑의 변화무쌍함을 표현한다. 지금까지 앨범 중 가장 팝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이 앨범은 팝의 문법과 형태를 따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의 가장 솔직하고 구체적인 감정을 마이크로 크기로 표현해 리스너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워낸다. 그가 청소년 시절 사랑하고 동경했던 팝 음악의 형식을 반영해 좀 더 많은 대중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성장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연금술사의 행위처럼 그의 음악을 통해 대중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회복하고, 에너지를 되찾는 과정을 겪고, 나아가 더없이 명징하고 우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 나의연
문화 컨텐츠 에디터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발을 디딘 뒤, 레이블 AOMG를 거쳐 현재 파도엔터테인먼트에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안무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연구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시옷을 위해 쓰인 적 없는 ㅅ

프라우드먼은 일반적인 댄스팀으로 설명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집단이다. 리더 모니카를 포함해 댄서 13명이 합을 이룬 프라우드먼은 하나의 대가족 같기도, 두근거림을 갖고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동호회 같기도 하다. 연습 중 감정이 사무쳐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기도 하고, 작품을 완성한 후 다 같이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집단. 프라우드먼은 춤으로써 단순히 아름다운 동작이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매번 새로운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내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한다.

Sync Next 23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됐다. 최초에 공연 제안을 받은 모니카에게 블랙박스형의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세종S씨어터 무대는 프라우드먼이 시도해보고자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담은 도전적인 작품 세계와 맞닿아 있다. 모니카는 이 무대 경험을 그의 팀인 프라우드먼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이에 세종문화회관과의 긍정적인 검토로 모니카는 프라우드먼의 리더이자 일원으로 〈쓰인 적 없는 ㅅ〉이라는 이름의 무대를 서게 됐다.

그러나 필자의 '새로운 메시지를 담은 도전적인 작품 세계'라는 거창한 말과 달리 이번 〈쓰인 적 없는 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꽤 평범하고도 일상적이다. "작품은 관객의 마음속에 남아야 한다"는 모니카의 말처럼, 이번 공연은 관객이 작품의 메시지를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한다. 또한, 작품의 제목처럼 무대가 마무리됐을 때 관객 개개인에게 '쓰인 적 없는 ㅅ'은 무엇일지 스스로 되물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를 원한다. 〈쓰인 적 없는 ㅅ〉은 난해하지 않을 것이고, 명료할 것이고, 친숙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ㅅ을 위해 이 작품이 써 내려가는 열두 문장은 평범하지만, 관객 개개인의 ㅅ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쓰인 적 없는 ㅅ〉의 음악감독이자 퍼포먼스를 함께하게 된 씨피카CIFIKA는 모니카와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과거 한 촬영장에서 서로를 처음 만나, 둘은 서로의 작품에 대한 오랜 팬이 됐다. 프라우드먼은 씨피카의 'DOOROOGO' 2017에 맞춰 배틀 오브 더 이어 코리아 2022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언젠가는 작품의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보자는 두 사람의 같은 마음이 Sync Next 23에 닿게 됐다.

씨피카는 특유의 강렬하고도 몽환적인 분위기와 노랫말로 듣는 이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번에 프라우드먼의 춤과 더해질 씨피카의 음악은 쓰인 적 없는 ㅅ을 찾아가는 관객들의 항해에 바람을 더할 것이다.

두 사람은 〈쓰인 적 없는 ㅅ〉을 통해 무엇이 ㅅ인지 특정하지 않는다. 이는 안무가 모니카와 음악가 씨피카의 작품 철학과도 같으며, 작품을 통해 각자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 이를 강요하거나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작품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은 온전히 관객의 몫이다. 그래서 프라우드먼과 씨피카가 쓰고자 하는 ㅅ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쓰인 적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공연을 보고 세종S씨어터를 떠나는 모두의 마음속에 각자의 ㅅ이 써지기를 바란다.

08/18 — 08/20

19

궁리소 묻다의 과학-몸-우주=물리학-미학-철학

우주 양자 마음

글. 이성곤
연극평론가. 재일코리안 극단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인생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을 만나기 위해 극장을 찾으며, 연극을 통해 세상이 조화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는 양자역학까지 왔다.

강원도 화천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리서치 그룹 '궁리소 묻다'의 얘기다. 오는 8월 세종S씨어터에서 〈우주 양자 마음〉이라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12월까지는 '수학하는 몸' 프로젝트를 통해 수학과 몸과 움직임이라는 화두에 집중했다. '우주'와 '양자'와 '마음'. 어쩌면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온전히 다다를 수 없는 세계일지도 모르겠다. 수학적 세계와 달리 불확정적이며 직관적이라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예술, 특히 인간의 몸을 기반으로 하는 공연예술과는 맞닿은 지점이 많아 보인다. 생성과 소멸의 무한 반복을 이해하고 경험한다는 점에서도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

예술의 역사에서 인간의 몸이 천대받은 적도 있었다.

고든 크레이그E. Gordon Craig는 수시로 성질과 모양이 변하는 인간의 몸에 대해 '예술의 재료'로서는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몸이 지니고 있는 우연성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이 생각에 동의하는 예술가는 거의 없다. 에리카 피셔-리히테Erika Fischer-Lichte가 '수행성의 미학'에서 제안한 '자동 형성적 피드백 고리'와 '창발성' 개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술이 무언가를 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구닥다리 혹은 허구로 치부되고 있다. 예술뿐만이 아니다. 불확정성과 직관, 우연 같은 말들은 과학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왔다. 아니, 과학에 반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소위 '과학연극'이 대세다.

이는 '과학'을 주제로 한 '연극'을 통해 '인간'이라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과학자나 과학의 이론과 원리를 모티프로 하는 공연이 과학연극으로 불렸다. 이후에는 테크놀로지와 적극적으로 융합하는 연극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는 포스트휴먼으로서의 '비인간'이 창작이나 표현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궁리소 묻다는 과거의 질문들을 계승하면서도 살짝 다른 지점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한다. 2021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프로젝트 '건축무한다면각체-영零에서부터 몸까지'는 수학에서 시작해 양자역학으로 이어지면서 과학의 원리와 몸의 원리, 우주의 원리가 서로 연결돼 이어져 있음을 밝히려는 시도다. 과학(수학과 물리학)과 미학과 철학을 잇는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과학연극의 다른 영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시작은 공연창작집단 뛰다의 작업에서부터다.

궁리소 묻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창작집단 뛰다는 20년간의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의 몸과 즉흥과 움직임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2014년에는 인도 배우 4명과 함께 〈바후차라마타〉를 공연했다. 2011년에 시작해 4년 동안 수차례 한국과 인도를 오가며 리서치와 토론을 반복했다. 인도 신화에 나오는 제3의 젠더 '바후차라마타'를 통해 인간과 자연과 사회뿐만 아니라 연극과 배우와 관객과 배역 사이에 존재하는 다성성을 실험했다. 이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돗토리현의 새의극장鳥の劇場과 2년에 걸쳐 〈시의 교실〉을 만든다. 아쉽게도 이 작품은 일본에서만 공연되는 바람에 한국 관객과 만날 기회는 없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그리고 개인에게 남겨진 상처와 기억을 토대로 배우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텍스트를 만들어나갔다. 마찬가지로 지난한 리서치와 토론의 과정이 있었다. 연극에서의 서사와 탄탄한 미학적 설계보다는 퍼포머와 배우의 즉흥성과 창발성을 핵심으로 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오랜 시간의 리서치와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함께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공통 감각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두 작품이 변곡점이 된 것 같다.

리서치그룹 궁리소 묻다의 탄생에 결정적 계기가 된 공연은 공연창작집단 뛰다의 마지막 작품 〈휴먼푸가〉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하지만, 이 작품을 만드는 데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궁리소 묻다가 발간한 '즉흥 수행법'과 '휴먼푸가' 서문에서 배요섭 연출은 배우들이 움직임명상에 기반한 여러 가지 즉흥 훈련을 경험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많은 장면이 즉흥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공연하는 순간들도 즉흥에 가까웠다"고 말한다. "매번 새로운 조건 속에서 20-30분간 오픈 즉흥 연습을 진행해 배우의 몸을 제로셋 상태로 조율"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공연은 시작될 수 있었다. 그 방식에 대한 확신과 궁금증이 즉흥 수행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휴먼푸가〉를 준비하면서 배우들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다. 고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어쩌면 국립극단과 벨기에 리에주극장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 〈스트레인지 뷰티〉(배요섭 연출, 2022/09/01-09/18, 국립극단 소극장 판)를 통해 즉흥 수행과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들이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다면각체의 건축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수학하는 몸' 프로젝트는 그렇게 가동을 시작했다.

그간의 작업이 "몸으로부터 생성되는 것들"에 대한 작업이었다면, 이후의 작업은 '몸에 이르는 작업'으로 "마음의 작용"에 관한 것이다. 이 과정을 논리적 언어로 풀어내는 것은 솔직히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궁리원의 말을 빌리자면, 이를 탐구하기 위해 수학과 현대물리학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다. 수학과 명리학, 몸과 우주 운행의 원리, 기하학과 라반Rudolf von Laban의 움직임 정육면체, '미분'화된 몸과 움직임 확률 등 1년간 '수학하는 몸'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구조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2022년 11월에는 화천과 서울에서 '수학하는 몸' 과정공유회 형식의 즉흥 퍼포먼스 공연을 올리기도 했다. 〈스트레인지 뷰티〉에서도 사용했던 거대한 정십이면체 구조물을 중심으로 배우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위한 탐구의 과정을 보여준다. 재미있는 것은 즉흥 수행의 과정이 거듭될수록 퍼포머는 물론 지켜보는 이(관객)의 시선에도 일정한 원리가 포착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양자역학까지 나아갔는지도 모르겠다.

〈우주 양자 마음〉은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몸과 마음의 미세한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다. 이쯤 되면 더더욱 궁리원들의 말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눈치 빠른 독자들이라면 벌써 알아차렸겠지만, 즉흥 수행에 기반한 궁리소 묻다의 작업을 가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월 초 첫 개별 리서치를 마친 배요섭 연출에게 공연에 대해 슬쩍 물어봤다. 역시 대답은 '나도 모른다'였다. 그래도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었다. '수학하는 몸'을 통해 "그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과정을 통해 퍼포머의 내적인 풍경이 변화되는 경험", "세상을 이해하는 다른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처럼, "양자역학과 인공지능, 상대성이론의 세계를 접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퍼포머들의 몸과 마음의 풍경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 이를 통해 누구도 예기치 못한 무엇이 창발되리라 기대하는 것. "그런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반짝이는 물건들을 건져 올리고 엮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으로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다만 '과정에서 의미들이 생성되고 관객들과 만나면서, 관객 각자의 재구성을 통해 그 세계가 완성되기'를 바랄 뿐. 〈우주 양자 마음〉은 공연이 올라가고 관객들과 만나는 그 순간마저도 불확정적이고 직관적이며 우연(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의 소용돌이 속에 존재하게 될 것 같다.

20

성실한 N잡러 현진 씨
백현진 쇼: 공개방송

09/01 — 09/03

백현진은 전천후다. Z세대는 그를 '프로 n잡러'라 부른다. 혹은 올라운더all-rounder, '예쁜 육각형'(능력치 그래프의 모든 요소가 꽉 차 있는 모양) 엔터테이너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백현진은 가수 겸 작곡가(어어부 프로젝트·방백·백현진씨C 멤버), 현대미술가, 배우, 시인의 경계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 애수에 능한 가객歌客 같기도(가수·작곡가), 영감을 유유히 곳곳에서 받아들이는 방랑객放浪客 같기도(현대미술가), 주로 악역을 맡더라도 파토스pathos를 부여해 장면마다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몰살시키는 자객刺客 같기도(배우), 시로 논리를 따지는 경지에 이르는 논객論客 같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든 객客이 아닌 주主의 자리로 들어선다. 노래하지 않고, 그림 그리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시를 쓰지 않는다. 감각으로 모든 걸 밀어붙인다. 더욱이 무엇이든 얄따랗게 하는 구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백현진 쇼: 공개방송〉은 이 세상에 없는 공연이다. 세종문화회관 Sync Next 23에서 선보이는 이 공연은 어떤 장르로도 명명할 수 없는데, 실험극도 아니다. 그냥 백현진 '쇼'다. 김오키·이태훈 등 백현진과 오랜 호흡을 맞춰온 세션으로 구성된 밴드 백현진씨Bek Hyunjin C의 사운드와 영상, 설치미술, 스탠드업 코미디, 토막극(단막극보다 더 짧은 호흡의 콩트), 인터뷰, 낭송 등이 5-6분 단위로 약 80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며 '듣도 보도' 못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백현진의 첫 공연 연출작이다. 낯섦으로 가득할 게 분명하지만, 그 어느 장면 하나도 보는 이를 소외시키지 않는 흡인력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언어에 민감한 백현진이 자기가 이해한 것만, 할 수 있는 말만 펼쳐낼 거라는 신뢰 때문이다. 그는 과장과 허례허식을 끔찍해한다. 5월 중순 연남동 작업실에서 만난 백현진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완전 새로운 건데 저도 아직은 뭐가 나올 줄 모르겠다"고 말했다.

'n잡러의 시조새'로 통합니다. 특히 이번 〈백현진 쇼〉는 n잡러 면모가 집약돼 보이네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쇼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간 문명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한 어떤 것들을 작품에서 보여줄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것들이요. 이별이나 죽음. 왜냐하면 제 나이 때엔 문상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걸 무겁지 않게, 가볍게 만들고 싶어요. 무엇보다 두루뭉수리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견해이고,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할 거에요. 언어로 정리가 된다는 건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이별,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배우들이 많이 출연해요. 뮤지션까지 하면 출연진이 열다섯 명 넘을 거 같습니다. 5, 6분짜리 꼭지들이 쉴 새 없이 연결돼 돌아갈 거고요. 출연진이 새로 나오는 구조를 동력으로 꾸려봐야죠. 음악 공연은 아니에요. 세종문화회관에선 실험극이라고도 부르시는데 실험극보다 '쇼'가 더 편해요. 평소 생각했던 것들을 무대에서 쇼로 아웃풋output하는 건데 연출가로선 저도 경험이 딱히 없는 거라 재밌어요.

문명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저는 문명이 수정, 개선, 발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셋 다 '더 나아진다'는 거잖아요. 전 나빠진다는 쪽도 아니고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화, 변경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사과를 두 개 갖고 있다가 육만 개를 갖게 됐다고 쳐봅시다. 육만 개를 갖고 있는 게 발전하고, 수정되고, 개선된 걸까요? 아니에요. 두 개 있다가 육만 개로 바뀐 거고, 변화한 거죠. 즉 문명에서 수정, 개선, 발전은 없고 변화, 변경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게 제 견해인데요. 일종의 문명에 대한 제 태도, 철학인 거죠. 대자연이라는 건 변화하고 변경되는 거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날이 서 있는 과학자, 철학자 중엔 저처럼 문명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죠. 드디어 극에서 쉽게 '문명에서 수정·개선·발전은 없다'라는 문장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현진 씨가 활동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현진 씨'라는 본질은 그대로인데 영역만 변화하니까요. 그림 그리는 것에 관해 얘기해볼까요. 그림을 더 잘 그리려고 오래 붙잡지 않아요. 예전엔 어떤 한 점을 몇 년씩 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릴 때도 제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더 낫게 만들려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제 철학은 모든 생활에 적용돼요. 삶에 수정, 개선, 발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삭제한 지 오래됐어요. 평소 말할 때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바꾸자'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이렇게 발전시키자'라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현진 씨는 어떤 분야에 몸담든 다 현진 씨로 보입니다. 사람이 시스템에서 교육받고 살다 보니까 엇비슷해 보이는 면이 많죠. 전 청년 때부터 '예술가로서 다른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대신 무리하는 거 안 좋아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 괴롭히는 거 질색입니다.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일일 뿐이지 다른 일보다 더 낫다고 생각 안 해요. 문명이래로 만들어진 창작 작품, 특히 예술에 국한해 이야기하면 예술 작품 중 한 사람 인생에서 그걸 접하지 않는다고 큰 일 날 만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제 것도 그중 하나죠. 그래서 전 꼭 이뤄내야 한다는 게 전혀 없어요. 다만 마감은 다른 사람과 약속이니까 해내야죠. 마감 전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공연을 하는 거죠. 공연하면서 저도 배워 나갈 거고, 또 바뀌나갈 거고요.

현진 씨 생각은 주류가 아닌데 주류에서 현진 씨를 그 자체로 받아들였어요. 참 특이하고 특별한 상황입니다. 주류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관심 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사실 또 빨리 받아들여졌다면 빨리 받아들여진 것일 수도 있죠.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전 권위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은 권위에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리움에서 전시한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구시렁거리는 경우가 줄어드는 거 같아요.

솔로 음반 발매도 준비 중이시라고요. 〈Csimplex 04〉2020 음반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굳이 장르를 분류하면 전자음악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밴드음악하는 백현진이 아니라 믹싱·프로듀서·녹음·연주·작곡을 혼자 하는 시리즈예요. 전자음악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소리를 합성하는 걸 재밌어하는데, 소리를 합성하려면 전자악기를 써야 하니까요. 올해 〈Csimplex〉로 정규 두 장을 낼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백현진씨 정규 음반까지 하면 올해에 낼 정규 앨범이 세 장이죠.

배우·미술가 백현진만큼 가수 백현진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노래를 많이 해요. 80분 쇼에서 30분은 제가 노래할 거 같아요. 캐스팅은 거의 마무리됐는데, 미니멀한 무대에 혼자 있어도 존재감이 대단한 분들이 출연할 거예요. 무대에 서면 계속 쳐다볼 만한 사람들이요.

접해보지 않은 예술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안 해 본 것 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있나요. 저 건축도 안 하죠, 안 해 본 거 많아요. 새로운 것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도 내 코가 석 자라…. 그저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다만 뭔가를 해내야겠다는 생각이나 목적지가 없으니까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다른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영화 프로그래머(백현진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객원 프로그래머로 일했다)도 하고요.

마흔까지는 뭔가로 확실한 결정을 짓겠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위대한 화가들에게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끼지만, 그들의 삶엔 목표가 분명했고 그건 '올드스쿨Old School'이 됐죠. 전 목표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때 만난 홍상수 감독님을 계속 지켜보면서도 쓸데없는 목표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많이 느끼고 배웠어요.

(독일 표현주의 무용의 거장인) 피나 바우슈Pina Bausch를 보면서는 '사람이 좋아야 해'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죠. 안은미 누나랑 어어부 프로젝트의 장영규 형이랑 피나 바우슈 연습실 공개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무용수들이 '피나가 뱀 파이어처럼 우리 것을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나는 뭘 해 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문상', '죽음' 같은 키워드만 던져줘요. 탄츠테아터 부퍼탈Tanztheater Wuppertal 무용수들은 '공포의 외인구단'이잖아요. 각자 댄서이면서 안무가이기도 하죠. 그런 무용수들이 무언가를 해가면 피나는 '이걸 빼고 이걸 하자'라며 정리를 할 뿐이죠.

그러면 무용수들이 '피나는 배치만 하는데 이름은 다 가져간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뱀파이어에게 목 내주려고 무용단 들어온 거 아니냐'고. 본인들도 거기에 할 말이 없으니까 웃기만 하더라고요. 하하.

현진 씨는 생각보다 훨씬 성실한 사람 같아요. 대놓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일꾼은 성실해야죠. 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성실하게 안 하면 일을 좋아하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전 일을 진짜 좋아해요. 성실하게 일을 봐야 하죠. 그건 직업윤리예요.

천재과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백남준 그런 분들이 천재죠. 또 과학이 불확실한 것이라 증명을 한 하이젠베르크나 수학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한 괴델 정도가 돼야 천재고요. 박찬욱 감독님이 제게 천재라고 말씀하신 건 그냥 덕담이에요.

기본적으로 직업윤리를 갖춘 성실한 노동자네요. 사실 그 부분은 말로 할 필요도 없는 기본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성실한 건 택시 기본요금 같은 거죠. 최근엔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어요. 9월 〈백현진 쇼〉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몸에 신경쓰는 건 처음이에요. 여러 출연진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제가 많이 나올 텐데, 퍼포머로 재밌는 거 하려면 몸을 다스려야겠더라고요. 이번에 세종문화회관과 작업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이재훈
뉴시스 문화부 기자.
사회부 사건팀으로 기자 생활을 시작해 현재 문화부에 있다.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이다.
사진. Studio79

21

김성훈, 몸의 언어로 말하다

글. 장혜선
바른 시선으로 무대를 영원히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글을 쓰고 있다. 월간 객석에서 수석기자로 근무했다.
사진. Studio79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리서치를 많이 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신작의 경우 '학교폭력'을 키워드로 접근합니다. 이 주제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학교폭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동안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언론에서 학교폭력에 관해 자주 다루는 걸 보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과거에 제가 겪은 일들도 떠올랐고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주제가 아주 낯설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었는데 그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나 싶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작품을 만들 때마다 현재의 제 감정을 위주로 접근했는데, 이렇게 명확한 주제에 도전하는 건 저에겐 나름 도전이에요.

〈조동〉2022이나 〈Torch〉2021를 보면, 현대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곤 합니다. 보통 주제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는 편인가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일상생활을 통해 불현듯 주제가 저에게 오는 경우가 많죠. 길을 가다가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다가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타인을 향한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학교폭력이라는 사건 안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이번 작품에서는 어떠한 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인가요? 세 가지 유형이 전부 나오긴 하지만, 한 명의 무용수가 피해를 당하는 장면이 중심적으로 나올 거예요. 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해야 관객이 이해하거든요. 정확한 캐릭터가 있는 몸의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용수 16명이 무대에 출연합니다. 선정 기준이 있나요? 처음에는 학생 분위기를 지닌 무용수들을 생각했는데, 다양한 무용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꼭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무용수마다 개성이 달라요. 결혼한 분, 자녀가 있는 분 등등 현재 지내는 환경도 전부 다르고요. 닫혀 있던 시각을 무용수들이 열어줬어요. 오히려 연령층을 골고루 다양하게 설정했죠. 각기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같은 환경에 놓였을 때 반응하는 상황을 살펴보려고 했어요.

한 평문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초기작을 1기로 보고, 2016년 해외 활동을 멈추고 안무에 집중하기 시작한 작품을 2기로 나누더군요. 이러한 분류에 동의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크람 칸 컴퍼니Akram Khan Company에서 8년 정도 활동하면서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어요. 이전까지 저는 움직임의 다양성보다는 미장센이나 이미지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 아크람 칸 컴퍼니에서 움직임의 범주가 확장됐다고 할까요. 아크람 칸의 작품 성향이 오브제나 무대 세트보다는 무용수의 움직임에 더 주목하니까요. 당시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했지만, 프로페셔널 댄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 작업 방식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의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시대에 맞는 언어가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그러한 작업 스타일이 '콜라주 기법'으로 정의되곤 하는데요. 이 작업 방식이 일반 관객에게는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기에는 제 작업 방식이 자주 바뀌어요. 저는 사람들을 관찰한 후에 그것을 움직임의 형태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각각 무용수들이 가진 몸의 언어를 통해 작품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기도 하고요. 하나의 주제를 깊게 파고드는 작업도 되게 좋아하고, 옴니버스도 좋아하고, 스토리텔링도 좋아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람 냄새나는 걸 가장 좋아해서,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접근하려고 해요. 무대 의상을 선택할 때도 평상복을 입어요. 일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상들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신작 〈그리멘토GRIMENTO〉는 어떠한 작업 스타일을 취하고 있나요. 명확한 스토리텔링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무용수 16명에게 제목에 들어간 '회색gris'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해 각자의 움직임을 열어놓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미지를 느껴보고 있어요. 학교폭력에 대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성이 확보될수록 표현할 부분이 많으니까.

세종S씨어터라는 가변형 무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S씨어터는 블랙박스 극장인데, 형태를 변형하기보다는 관객의 시야가 무대에 집중되도록 연출하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공간으로 만들 것 같아요. 제가 S씨어터에서 공연을 볼 때, 어느 곳에 앉는지에 따라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신비로운 극장이라고 느꼈고, 그 점이 좋았어요. 이곳에 올리는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 어떻게 몰입감을 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무대를 통해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 작품으로 학교폭력이 극적으로 없어지진 못하겠죠. 그래도 대중의 관심을 끌면 좋겠어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2 정구호, 무대 위의 정반합

글. 편집부
사진 제공.
황필주/월간객석

"정구호가 만들면 무조건 본다고 할 정도로 인지도를 쌓아야겠죠."
올해 서울시무용단 〈일무〉 재공연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구호는 이렇게 말했다. 1998년 안성수픽업그룹과의 비주얼 작업을 시작으로 국립발레단·국립무용단·국립오페라단·경기도무용단·전라북도립국악원 등 다양한 단체와 협업하며 무대 작업을 이어온 그에게 다소 겸손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특히 전통과 춤에 있어 장기를 발휘해 온 그가 이번엔 컨템퍼러리 댄스 작품의 연출에 나선다. 오늘날 정구호의 무용 의상과 연출은 모던하게 탈바꿈한 전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 그는 1990년대 후반 패션계에 종사하던 당시 의상과 무대 디자인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가 해오고 있는 작업은 장르와 관계없이 춤을 둘러싼 비주얼을 다듬고 새롭게 하는 일이다.
이번 신작에서 그는 연출과 무대·조명·소품 디자인을 맡았다. 작품의 소재와 주제 또한 그가 물꼬를 텄다. 넷플릭스 시리즈 〈루머의 루머의 루머13 Reasons Why〉와 제이 애셔Jay Asher의 원작 소설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소재에 관심을 가졌고, 복수보다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작품 구상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무용 장르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고 있기에, 과감히 사회 이슈를 다루기로 결심한 것. 단순히 폭력만 문제라는 관점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친구가 있다면 반대로 그것을 막으려는 친구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에너지가 균등하게 힘을 겨루며equalizing 작품이 '치유'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종국적으로 연출가이자 장르와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가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처럼 여러 장르가 한데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무대는 종합예술의 공간이기에. 이번 신작은 '연출가 정구호'가 그리는 종합예술의 예고편이 되지 않을까 싶다.



GRIMENTO 결국은 '희망'

글. 장혜선

학교폭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이처럼 뜨거웠던 때가 있었을까. 이를 소재로 한 콘텐츠는 지금도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을 정면으로 건드리며 화제를 모았다. OTT 콘텐츠는 물론, 공연 무대에서도 이러한 소재가 자주 소환된다. 일례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은 일본 극작가 하타사와 세이고はたさわ せいごの 희곡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한국에서 연극과 영화로 발표되기도 했다. 동시대성을 겸비한 강력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힌 세종문화회관. 올여름 펼쳐지는 컨템퍼러리 시즌 Sync Next 23에 오르는 〈그리멘토GRIMENTO〉는 이 시대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화두, 학교폭력을 이야기한다.

정구호와 김성훈, 두 예술가의 세 번째 만남

작품은 학창 시절,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갈등, 차별, 폭행, 미움, 치유 등 학교폭력과 연관된 순간들이 무용수 16명의 몸으로 표출된다. 이 소재를 안무가 김성훈에게 먼저 제안한 건 연출가 정구호였다. 이들은 2020년, 정동극장 개관 25주년 기념 공연 〈김주원의 사군자_생의 계절〉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 작품은 사군자를 소재로 인연에 관한 메시지를 그린 작품이다. 당시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에서는 배우와 음악가·무용수의 성공적인 협업을 보여줬다. 이어 2022년 서울시무용단 〈일무〉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종묘제례악 의식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이목을 끌었다. 발레와 한국무용에 이어 이번에 선보이는 신작 〈그리멘토〉는 현대무용 작품이다. 무엇보다 정구호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현대무용 연출이라 더욱 시선을 모은다.
'그리멘토GRIMENTO'라는 작품명은 프랑스어로 회색을 뜻하는 'gris'와 라틴어로 기억·순간을 말하는 'memento'의 합성어로, '회색의 순간들'을 의미한다. 정구호가 직접 지은 이름이다. 이번 공연 무대에는 '회색'이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구호가 연출을 맡은 작품들은 대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나 강렬한 색채, 고아한 의상 등으로 화제를 모았다. 반면, 어두운 소재를 다루는 이번 신작에서 정구호는 이전과 다른 무대 미장센을 구상하고 있는데, 회색빛을 품은 무대가 세종S씨어터에 펼쳐질 예정이다. 회색도 명암에 따라 여러 색깔을 띤다. 흰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회색 등 같은 회색도 농도가 전부 다르기 마련이다. 〈그리멘토〉에선 무대 위를 채운 잿빛 무드가 무용수들의 흐름에 따라 진해지기도, 묽어지기도 하면서 여러 '회색의 순간들'을 담는다.

학교폭력, 우리 사회의 이야기

안무가 김성훈은 '학교'가 사실은 '사회'라는 사실에 집중했다. 아직 미성숙한 존재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 그래서 그는 '갈등, 차별, 폭행, 미움, 치유'로 단락을 나누고, 마지막에는 꼭 '치유'를 넣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렇기에 〈그리멘토〉의 끝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토대로 이뤄진 치유가 꼭 담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가 이 공연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적대와 분개가 아닌, 결국 '희망'이다.
무대 위에는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닌 무용수 16명이 선다. 김성훈은 개별 무용수가 지닌 특유의 움직임을 존중하고, 주제에 따른 일상적인 움직임을 조사한 후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두 가지를 하나의 이미지 장면으로 구성하는 안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로, 현재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파고드는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그리멘토〉를 위해 다양성이 돋보이는 무용수를 섭외·구성했다. 앞서 언급했듯 학교가 사회라고 가정했을 때, 분명 여러 개성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 다른 경험을 지닌 무용수들이 모여 자신의 지난 시절을 회고하며 움직임을 꺼낼 계획이다.
음악에는 김재윤이 함께한다. 안무가 김재덕의 동생으로 알려진 그는 국립발레단원으로 활동했으며,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더 데빌〉, 〈곤 투모로우〉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음악 작업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 댄스필름 〈낙차 1〉과 〈낙차 2〉에서 작곡가로, 뮤지컬 영화 〈하나만 가져갈게〉에서 음악감독으로 활약했다. 이번 〈그리멘토〉에서는 클래식 음악·일렉트로니카·록 사운드까지 장면마다 여러 장르의 음악을 활용한다.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택한 이유는 〈그리멘토〉가 어린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 나이에는 많은 것이 새로울 수밖에 없는 때이지 않은가. 무대 위 무용수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흡수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것에 눈뜨는 시기임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시각적으로는 가라앉은 분위기의 무대 연출과 청각적으로는 강렬한 에너지를 품은 이번 공연이 관객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를 모은다.



INTERMISSION

고관여 관객의 공연 문화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한정호 / 전윤혜 / 전이슬

1부를 열정적으로 즐긴 독자도, 입장 타이밍을 놓쳐 이곳에 곧바로 도착한 독자도, 모두 환영합니다. 잠시 극장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휘몰아친 감흥에 잠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 펼쳐질 무대에 대한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시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Christoph Köstlin/DG

고관여 소비자의 존재, 득인가 독인가?

국내에서 처음 소비자 행동 분석이 적용된 장르는 뮤지컬이다. 2000년대 후반 리먼 사태로 공연시장 전체가 소비 불황에 빠졌을 때도, 오직 뮤지컬만은 승승장구했다. 경기와 무관하게 돈과 시간을 들여 뮤지컬과 조승우·김준수에 올인하는 두터운 '회전문 관람' 그룹을 소비자 경제학에선 '고관여 소비층'으로 불렀다. 2010년대 'n차 관람', '마니아', '덕질', '팬덤'이 공존과 배제를 오가며 뮤지컬을 먹여 살렸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 공연은 세부 공연 장르(교향곡·실내악·성악)나 개별 악기(피아노·바이올린) 마니아가 소수지만 뼈대를 이루고, 미디어를 통해 접한 명성을 보고 공연장을 찾은 다수의 일반 관객이 살을 채우며 전체 관객군을 형성했다. 해외 음악가들이 '한국 관객은 젊다'고 할 때, 그들이 주시한 그룹은 커튼콜과 사인회에서 특히 존재감이 드러난 마니아들이다.

반면, 서구에서 클래식 음악 공연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이룬 다음 즐기는 여가 공간이다. 2019년 기준 뉴욕 메트로폴리탄오페라와 뉴욕필하모닉의 평균 관람 연령은 57세다. 1996년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와 길 샤함의 첫 내한 공연을 보던 X세대가 사반세기가 지난 2023년 뉴욕 링컨센터에 간다면, 그곳에선 여전히 '젊은 축'에 속한다. 지난 20년 사이 '영포티', '뉴식스티' 비중이 한국 클래식 음악 시장에 늘었지만, 서구에 비하면 한국 관객은 아직 젊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까지 정경화·정명훈·조수미·백건우·임동혁·리처드 용재 오닐·손열음·김선욱을 핵심 인물로 공연 기획사 크레디아와 빈체로는 자체 제작 공연과 해외 오케스트라 협연에 이들을 기용해 마니아와 일반 관객을 배합했다. 현대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한, 기획사는 이들 공연으로 서울에선 티켓 수익, 지방 공연장에는 공연권 판매로 이문을 취했다. 이들과 함께라면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으로도 흑자가 훤했다. 다만 뮤지컬과 비교하면 '나이브'한 제작 방식으로, 관객 확장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러다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 조성진이 나왔다. 조성진의 기량은 마니아층에서야 2009년 하마마쓰 콩쿠르 우승,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로 검증이 완료됐지만, 신문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과는 거리가 있어 그의 공연은 일반 모객이 어려웠다. 쇼팽 콩쿠르 이후 "세계 최고 경연에 우승한 최초 한국인" 타이틀이 미디어를 장식했고 클래식 음악, 피아노, 조성진에 익숙하지 않던 일반 관객이 짧은 기간 동안 '조성진 고관여 소비층'으로 변모했다.

클래식 음악 업계는 조성진 우승을 특수로 삼으려 "조성진이 불을 지폈다. 지금이 클래식 대중화 찬스"(2015/12/11 아시아경제)식의 풍선을 띄웠고, 조성진 미출연 공연에도 낙수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오직 조성진 공연만 흥했다. 2015년 이후 지금도 조성진 출연 공연은 서울과 지방, 협연과 독주, 실내와 야외를 막론하고 전석 매진이다. 어제와 다른 조성진의 하루하루에 대한 관심이 클래식 음악 시장에선 본 적 없는 n차

관람으로 이어졌다. 표만 있으면 어두운 경로라도 구해 조성진의 오늘을 확인하려는 그룹은 '클래식 음악 마니아'보다 '조성진 고관여 관객'이 적확한 분류다. 조성진을 보다 보니 다른 음악가도 찾게 됐다는 관객층이 찾은 이벤트도 주로 미혼 남성 피아니스트 공연이다. 조성진 출현 이전에도 인물에 반해 장르가 좋아졌다는 관객은 늘 존재했고, 평균적으론 물가 상승률 정도의 관객 증가분이 있었다.

조성진을 향한 애착으로 해외 공연 원정에 나서는 강력 팬덤도 등장했다. 클래식 음악 공연은 본질적으로 연주자와 청중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다가 공연이 끝나면 서로 안녕을 고하고 사라지는 일회성 예술이다. 그러나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서울을 떠나 원정에 나서, 심지어 연주자가 잊고픈 연주까지 남김없이 '출첵'하는 환경이 한동안 이어졌다. 2020-2022년 코로나19 창궐로 해외여행 제한이 생기면서 조성진 공연 원정 관람을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던 추세는 누그러졌다. 사회학 관점에서 예술계 셀럽을 다루고 관리하는 노하우가 국내에도 교육 체계로 전수된다면, 클래식 음악계 최우선 연구 대상은 조성진이다. 지난 5월 유명 예술경영학회에선 조성진의 팬덤이 공식 발제에 올랐다.

공연업계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던 지난해 6월, 미국 반 클라이번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 18세 임윤찬이 탄생했다. 여러 매체가 '세계 몇 대 피아노 대회'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를 소환하지만 1966년 우승자 라두 루푸를 제외하면 이 대회 우승자로 후대에 전설적 명인으로 자리잡은 경우는 없다. 2005년 양희원, 2009년 손열음이 준우승했지만, 국내에도 큰 반향은 없었다. 국내에선 2017년 선우예권이 한국인으로 처음 우승해 각광받았다. 21세기에 배출된 입상자들의 북미 입지를 기준으로 하면, 반 클라이번 콩쿠르를 자신 있게 세계 몇 대 피아노 대회로 칭하긴 어렵다. 엄밀히 말해 경연 내내 이어진 임윤찬의 믿을 수 없는 연주 덕에 위기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가 빛을 보는 구조다. 경연 실황을 지켜본 주요 공연장, 악단 관계자들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와의 연계 공연 계약이 없어도 임윤찬을 자신들의 무대에 세우고자 한다,

도이치그라모폰DG 레이블과 전속 계약하지 않은 아티스트지만, 어지간한 DG 아티스트들도 갖지 못한 초대형 팬덤이 임윤찬을 감싼다. 임윤찬의 국내 공연 역시 조성진처럼 티켓 오픈 얼마 후 매진이다.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임윤찬을 '제2의 조성진'으로 부르는 곳을 찾긴 어렵다. 임윤찬과 조성진이 어떻게 다른지, 반 클라이번 콩쿠르 이후 참전한 '임윤찬 고관여 소비층'이 학습을 완료한 덕이다. 애초에 임윤찬이 추구하는 음악이 경연에서 정당히 평가받기 어렵고 그래서 국제 대회 참가가 쉽지 않으리라는, 업계 관계자라면 2019년 윤이상 콩쿠르 이전에 술자리에서 나누던 이야기가 이제 임윤찬 고관여층에는 기본 상식이다.

인스타그램에는 임윤찬의 뉴욕필하모닉 협연을 본 한국 팬의 인증이 줄을 잇고, 위그모어홀 관람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지만 이를 기사화하지 말라는 셀럽도 있다. 연주자 측이 공연장 안팎에서 열성 팬의 무리한 접촉을 현명하게 피하는 편이다. 임윤찬은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로 유학지를 정했고, 재학 기간에는 공연 횟수를 크게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에 들어가 연습만 하고 싶다"는 표현에는 음악만을 파려는 의지와 도를 넘는 팬들과 멀리 떨어지겠다는 경고가 함께한다고 본다. 반 클라이번은 팬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피아니스트로 롱런하지 못했다.

공연을 소비하는 동시에 자신이 상품을 육성했다는 명분으로 간섭에 나서는 '팬슈머fan+consumer'적 압력은 엔터테인먼트에 흔하다. 임윤찬 고관여 소비자는 아티스트의 향후 미래 설계에 있어 직접 영향을 미치긴 어렵지만, 관계 업체에 다양한 제언과 피드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티스트가 팬과 어느 정도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차분히 관찰하고 이를 존중한다면, '제2의 반 클라이번' 사태는 함께 피할 수 있다. 도를 넘는 애착이 클래식 음악 업체를 먹여 살리더라도 아티스트에 해가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클래식 음악계에서 고관여 소비자의 존재는 득인가 독인가?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 재정으로 운영하는 공연장 최고책임자에게 제안한다. 조성진과 임윤찬 출연 공연권을 해당 지역 공연장이 구매해 공연을 주최할 땐, 지역민 우선 구매와 관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시스템 마련을 강구할 때다. 지방 공연장에선 몇 초 매진에 신음하는 지역 실구매자의 볼 권리 보장이 연주자 고관여층의 n차 관람에 우선한다.

한정호는 에투알클래식&컨설팅 대표이자 [세종문화N]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월간 객석에서 클래식 음악과 무용을 담당했고, 일본 오케스트라연맹·빈체로에서 일했다. 런던 시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화 정책과 매니지먼트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부와 공생하는 클래식 음악계

클래식 음악계의 고관여 관객이라, 언뜻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 큰기침이나 어쩌다 들리는 휴대전화 벨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한 공연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간섭하는 관객도 없고, 클래식 음악 산업이나 시스템에 대해 드러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관여 관객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은 공연장 밖에 있다.

클래식 음악계의 고관여 관객은 공연이 아니라 아티스트에 관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현상이 생긴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클래식 음악계에 팬 문화가 생겨나며 파생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클래식 음악계 팬덤 문화는 2015년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 우승한 기점으로 급격히 형성됐고, 지난해 임윤찬을 통해 폭발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2000년대 중반 10-20대 팬들을 몰고 다니던 피아니스트 임동혁·김선욱이 있었고, 결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시기 점잖고 다정한 신사 이미지로 30-50대 여성 팬층의 지지를 받던 음악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팬들은 전공자나 애호가가 주축이지 지금처럼 대중적인 열풍을 일으킨 정도는 아니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몇 초 만에 공연이 매진되거나 팬들이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을 쫓아다니는 현상도 거의 없었다.

팬 문화로 볼 때 조성진과 임윤찬의 존재가 독특한 것은 어느 정도 나이로 분리되던 팬덤의 연령층을 통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젊은 나이에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나이에 비해 성숙함과 겸손함을 갖춰 팬들에게 음악 이상의 인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음악적으로 탁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연령과 범위가 넓어지며 다양한 팬들이 나타났다. 고관여 관객도 그중 하나다.

클래식 음악계 고관여 관객의 특징은 해외 공연을 따라다닐 수 있을 정도로 '시간과 재정의 여유가 있는 이'다.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은 노력을 덜 들이고도 한국보다 자주, 좋은 자리에서 연주를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연장 안팎에서 아티스트와 마주칠 확률도 높다. 여기서부터 관여가 시작된다. 아티스트를 보러 해외까지 왔다는 사실을 어필하며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에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아티스트가 인사 한 번 해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넌지시 소속사나 주최 측에 요구하는 것이다. 아티스트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이들의 해외 공연 사진과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은 다른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해외 원정을 다닐 정도의 팬심이 클래식 음악계의 다양한 후원으로 이어지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은 한 음악가의 공연만 팔리는 기현상을 야기한다. 산업이 양질로 발전하려면 '애호가'가 생겨야 한다. 누구의 쇼팽, 누구의 리스트가 아니라 쇼팽과 리스트로부터 다양한 연주자들로 뻗어 나오는 형태가 건강하다. 이전의 음악 애호 문화는 여러 연주자의 음반과 공연을 비교하며 지식을 확장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물론 도쿄와 유럽으로 날아가 공연을 보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대개 남성 지휘자에 한정됐지만, 그럼에도 연주자의 풀pool은 다양했다. 현재의 고관여 관객층은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아티스트'와 '자신이 그의 음악을 향유하는 방식'을 공유한다.



6월 29일 스위스 엠메n브뤼크의 340석 규모 홀에서 열린 임윤찬 협연, 루체른심포니 공연에 폐막은 한국인 관객이 자리 했다. ©Philipp Schmidli/Luzerner Sinfonieorchester

고관여 관객은 물론 유럽에도 있다. 한 인플루언서는 팔로어를 모은 뒤 아티스트들과 셀피를 찍기 시작했고, 점차 대기실과 리셉션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구스타보 두다멜·클라우스 메켈레·예브기니 키신 등 유명 음악가들과 사진을 남긴다. 프레스 자격을 얻어 직접 행사에 참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소수의 아티스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는 아직 없는 듯하다. 그러니까 한 아티스트의 주변과 관계 맺는 경우는 덜한 편이다.

> 아티스트는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이라면 그 관객이 누구든 감사할 테지만, 그 관객이 자신의 삶에 관여한다면 별개의 이야기가 된다. 대기실에 찾아가 인사를 나누기 위해 누군가를 종용한다거나,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압박을 가하는 건 분명히 선을 넘은 관여다.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팬의 입장에서는 한두 번, 어쩌면 평생에 한 번의 만남일 수 있지만 아티스트는 이미 이 일을 매일하고 있다는 것. 40-50분의 협연 혹은 2시간여의 리사이틀을 끝내고 진이 빠진 상태라는 것. 그리고 비공개 행사 등 공연 후 일정도 상당하다는 것.

이를 인지한 조성진 팬덤에서는 '조모척' 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모척은 '조성진 모른 척'의 준말로,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모른 척해주는 것이 편하다는 언급에 따라 팬들이 벌이기 시작한 운동이다. 그의 무대 밖 삶을 존중해주기 위해. 그러나 고관여 관객의 바람은 일반 팬들의 자정 운동과 반대로 가고 있다.

> 고관여 문화는 한국의 메세나 문화의 부재가 큰몫을 한다. 유럽과 미국은 개인 후원 문화가 발달해 있다. 그리고 대개 아티스트의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관객은 티켓을 사는 관객이 아니라, 공연장이나 페스티벌을 후원하는 관객이다.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 업계 후원은 기업 후원 위주로 형성된다. 후원 예우도 부족해 주로 티켓을 제공하며 메세나를 위한 단독 공연과 리셉션은 일 년에 한두 차례 열릴 뿐이다. '아티스트와 교류' 부분은 없다시피 하다. 개인 후원이 발달하지 못하니 메세나급 관객이 아티스트와 연결되지 못하는 장벽이 있다. 그러니 후원 대신 해외 공연과 실물 구매의 형태로 몰린다.

물론 후원의 이유가 아티스트와 만나기 위함은 아니다. 클래식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네트워킹을 원하거나, 타이틀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공연이나 페스티벌은 이들의 후원금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거나 유명 아티스트를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메세나는 아주 중요한 존재다.

> 어떠한 이유든 유럽에서 메세나 혹은 후원자라면 아티스트와 만날 기회가 종종 생긴다. 대기실 앞에서 기다려 본 사람이라면 보았을 대기실 출입자 명단에 당신의 이름이 오를 수 있다. 페스티벌을 후원한다면 매일 밤 공연이 끝난 뒤 리셉션에서 아티스트들과 만나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

예컨대 필자가 참석했던 한 페스티벌에서는 공연이 끝난 뒤 5성급 호텔의 바를 걸어 잠그고 메세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날 작품을 초연한 유명 작곡가, 협연자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가 자리했고, 우리는 그가 그날 공연을 준비하며 영감을 받은 음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아니스트는 칵테일을 마시다 누군가의 요청으로 라벨 '라 발스'를 연주하기도 했다.

> 이러한 공연 외의 후원 문화, 리셉션 문화는 바로크 시절 궁정음악가나 계몽주의 시대 살롱 문화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오래된 클래식 음악 문화다. 아티스트에 따라 이런 행사를 즐기는 이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는 공식적인 일로 여겨지기에 아티스트도 일하는 마음으로 임한다. 후원하면 아티스트에게 관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뒤로 애쓰지 않아도 아티스트와 자연스럽게 만날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사생활의 침해와 연결되는 관객의 관여와 조금 다른 지점이다.

클래식 음악계는 언제나 부와 공생하며,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핫'한 아티스트를 개인이 티켓을 사고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특혜를 요구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후원 문화가 발달해 그 중간 지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또는 고관여 관객이 자정하지 않는 한 관여 현상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전윤혜는 음악평론가다. 월간 객석 기자, 출판사 수류산방 선임 편집자를 거쳐 현재 월간 객석 프랑스 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 화음평론상을 수상했으며, 쓴 책으로 여행 산문집 '별것 아닌 것'이 있다.

금지는 금지를 낳고

뮤지컬을 좋아하는 L씨는 "친구에게 뮤지컬을 소개해주기가 겁난다"고 한다. 소위 '머글'(뮤지컬을 잘 모르는 관객을 일컫는 말) 지인과 대학로에서 공연을 보기로 한 날, L씨는 지인이 신고 온 흰 운동화를 보고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다. 공연이 시작되고 신나는 넘버가 나오자 지인은 박자에 맞춰 운동화를 까딱거렸다. 신경이 쓰인 L씨는 지인에게 움직임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흰 운동화를 신었으니 더욱 조심해 달라고. 그 말을 들은 지인은 도통 공연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당분간 뮤지컬 공연장은 찾지 않기로 했다. "나도 모르게 민폐 관객이 되는 경험이 유쾌하지만은 않아서"다.



지난 9월 5일 막을 내린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현장. 올해 17회를 맞은 페스티벌은 아시아 최대 뮤지컬 축제로 성장했다.

여기서 흰 운동화는 왜 문제가 되는 걸까? 흰 표면이 무대 조명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공연장에 무심코 신고 간 운동화가 누군가에겐 신경 쓰이는 대상이 된다. 거기다 발을 까딱거리기까지 한다면? '관크'(관객 크리티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크는 게임에서 결정적 타격을 뜻하는 단어 '크리티컬critical'을 가져온 것으로, 공연 관람에 피해를 주는 관객을 뜻한다. 그렇다면 검은 운동화를 신으면 움직임이 한결 자유로울까? 그렇지도 않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이미 누군가 당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니 말이다. 음악이 흐르는 뮤지컬 공연장에서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이 현상은 '시체 관극'이라는 단어로 불리기도 한다.

> 공연을 보기 위해 시체가 되어야 하는 이 불편함은 본래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시작됐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공연 관람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는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의 관람 문화는 다른 관객의 관람 태도에 관여하는 일부 관객들의 제지 행위가 보편화되며 생겨난 '미리 조심하기'에 가깝다. 관크의 종류는 다양하다. 관객마다 크리티컬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까딱거리는 흰 운동화, 1열에 앉은 덩치 큰 사람, 바스락거리는 가방이나 패딩, 코로 거슬리게 숨 쉬는 사람, 속닥이는 일행, 덜그럭거리는 팔찌, 향이 짙은 핸드크림, 심심한 장면에서 웃는 사람… 지면상 여기까지만 적기로 한다. 이러한 관크는 현장에서 제재되거나 이후 온라인 관람 후기에서 '몇 열 몇 번 관객'으로 특정되는 형태로 고발되기도 한다. 공감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서로에게 관여하며 날로 높아지는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관객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리 조심하는 태도 덕분에 관람 매너가 성숙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공연 중 휴대전화 사용, 불법 촬영 등 비매너는 한층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지당하고 나면 극에 집중하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하는 데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진 않을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제지하는 사람도 공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결국 서로가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는 길을 택한다.

> 더욱이 내게 가장 크리티컬했던 순간은 다른 관객의 태도가 아니었다. 나도 어느샌가 다른 관객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은 때다. 배려를 넘어선 금지 문화는 공연장에 자주 방문할수록 몸에 자연스레 익는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다수의 암묵적 규칙으로 굳어지고 나니 당연한 매너처럼 느껴진다. 내가 겪은 만큼 나를 자제하고, 타인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도 강박을 받고 있으니, 당신도 받으세요. 강박은 전염이 되는 무서운 성질이 있다.

뮤지컬은 본질적으로 대중문화다. 대중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 그리고 대중문화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즐기는 문화. 뮤지컬이 태동하던 시절 보드빌Vaudeville 같은 초창기 공연은 처음부터 관객과 함께 웃고 즐기기 위해 시작됐다. 객석에서 터져 나오는 표현은 무대의 동력이었고, 뮤지컬은 이 동력을 지금껏 유지해오고 있다. 브로드웨이 공연장 로비에서 술을 팔고, 또 관람 중에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 행위보다 그것을 허용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주목하자. 물론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과하게 음료를 마시는 등 기본 매너가 없는 행동은 지탄받는다. 그러나 매너 외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들을 금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뮤지컬 관람 분위기는 이 동력까지도 '매너'의 범주 안에 넣고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해 아쉬움이 남는다.

> 요즘 나는 공연 안내 멘트나 홍보물을 제작할 때 '금지' 표현에 조심한다. 올해 축제에서는 공연장 관람 예절 포스터 속 '타인의 공연 관람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라는 문구를 '모두의 즐거운 공연 관람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로 바꿨다. 공연 전 안내 방송은 멘트를 따라 함께 스트레칭하도록 유도했다. 공연을 보기 전 다 같이 몸을 풀면 조금 더 유연한 마인드로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관객들이 따라 할까, 반신반의했지만 대부분의 관객은 처음엔 놀란 듯하다 이내 허리를 움직이고 웃으며 막이 오르길 기다린다.

극장은 나와 배우 단둘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수백 수천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울고 웃으며 함께 즐기는 공동체의 장 그러니까 '극劇장場'이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싶어 공연장에 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각자의 금지를 조금씩 풀어 보는 건 어떨까. 옆자리 관객 또한 공연을 즐기러 온 관객임을 이해하면서.

전이슬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에서 언론 홍보 및 해외 업무를 맡고 있다. 엑스코에서 전시 기획 운영을 거쳐 현재 공연 홍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끔 뮤지컬 관련 글을 기고한다.

좋은 연극에는 희망이 있다 서울시극단장 고선웅

글. 최여정
〈겟팅아웃〉 드라마투르그,
'사랑이라고 쓰고 나니 다음엔 아무것도 못 쓰겠다' 저자
사진. Studio79

서울시극단 〈겟팅아웃〉
2023/06/23 - 07/09 | 세종M씨어터
원작 마샤 노먼
번역 문새미
연출 고선웅

자 먼저, <겟팅아웃Getting Out> 이야기를 해 보자. 솔직히 처음엔, '고선웅 연출이?'라고 생각했다.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였다.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왜일까? <겟팅아웃>은 '알린'이라는 한 여성이 출옥 후 맞는 하루를 그린 작품이다. 그는 매춘, 탈옥, 그리고 살인죄로 8년을 복역하고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왔다. 부모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지나, 남성 교도관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10대를 보내고 이제 막 출옥했는데도, 남자친구는 알린을 찾아와 매춘을 권할 뿐 세상 누구도 알린의 편은 없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알린 자신이 있다. 불행했던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등장하는 어린 시절의 자아 '알리'와 현재의 '알린'으로 분열돼 등장하는 두 명, 아니 결국 한 여성의 성찰은 극적인 장치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알린은 '진정한 출옥'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를 응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작가 마샤 노먼Marsha Norman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겟팅아웃>을 쓴 마샤 노먼은 1983년 발표한 '잘자요, 엄마'night, Mother'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작가다. 그간 수차례 무대화된 이 작품에는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신·구 여배우들이 모녀로 등장했는데, 엄마 역에 나문희와 손숙, 딸 역에는 염혜란·이지하·황정민 등이 열연했다. 마샤 노먼은 <잘자요, 엄마>로 1983년 퓰리처상을 수상하면서 희곡작가로 명성을 얻게 된다. 작가 특유의 세밀한 시선은 한 개인의 삶을 관통하면서 탁월한 심리 묘사에 이르는데,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친 호소가 아니라 오히려 서늘함이 느껴질 정도의 객관적인 관찰로 빚어지는 카타르시스야말로 마샤 노먼만의 장기다.

여기에서 의문이 든 것 같다. 그동안 고선웅의 '사실주의 연극'을 본적이 있던가? 없다. 지금은 '고선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장르처럼 되어버린, 희비극성이 전복된 타이밍과 리듬, 과장성이 부각된 독특한 화법의 '운문성'이 마샤 노먼의 사실주의 희곡과 붙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이 작품은 고선웅식 사실주의 연극의 이정표가 되겠다.

"젊었을 땐, 사실주의 연극에 회의가 있었어요. '해가 뜨고 진다'라는 간단한 지문 한 줄을 무대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고단하고, 제작비도 많이 들어요. 당연히 스태프·배우들과도 많은 교류가 필요하고, 물리적 연습량도 많아져야 하죠. 오랫동안 '마방진' 연출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 지금의 제 연출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왜 다시 사실주의냐고요? 연극의 매력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이 범람하지만, 그 매력은 연극의 원형에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연출하고 실험도 해왔는데, 50대 중반 넘어서니 요즘 저는 '재래연극을 하는 사람'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앞으로 저의 여러 실험도 전통 연극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래도 다시 궁금했다.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왜 <겟팅아웃>을 선택했는지.

"연극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현재의 '알린'과 과거의 '알리'로 분열되는 캐릭터도 무척이나 매력적인데, 현재와 과거의 기억이 같은 무대 위에서 공존하고 움직이는 것이 재미있죠. 영화라면 화면을 편집해서 이어 붙이는 몽타주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극적 장치는 연극이 더 잘하는 일이니까요."

<겟팅아웃>은 이미 한국에서도 여러 번 공연했다. 1991년 극단 실험극장의 공연을 거쳐 2000년대에는 서울시극단장을 맡았던 문삼화 연출이 몇 차례 공연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제14회 여성연출가전2019의 라인업으로 관객과 만나기도 했다. 그동안 <겟팅아웃>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여성주의' 시각으로 해석됐다. 이런 질문은 여전히 유효할까.

알린은 감옥에서 낳은 아이를 재회하고 한 아이의 평범한 엄마가 되기를 원하지만, 한 번 일탈했던 제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미국과 한국이라는 상이한 문화, 그리고 1970년대 후반과 2023년 현재를 가르는 깊은 간극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건, '알린'이라는 한 여성이 온전한 자립과 자아를 찾는 과정이 위태롭기만 하다는 것이다. 알린을 둘러싼 남성들, 즉 교도관과 남자친구,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그에게는 안전과 보호의 상징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들이다. 하지만 고선웅 연출은 알린이 포르노그래피적 응시와 성적 착취의 대상이자 동정을 유발하는 피해자로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으로 이 작품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어떤 잘못도 용납이 안 되는 비정한 사회를 생각했죠. 우리는 충분히 반성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적인 온정주의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법은 훨씬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해요. 또 알린이 저지른 범죄의 특수성을 일반화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 특수성이 있음을 알리고 싶은 거죠.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우린 보통 단칼을 휘둘러버립니다. 옳고 그른 걸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 어느 순간 추락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동시에 딛고 일어서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즐겁게 만들면 관객도 즐겁다

고선웅 연출은 지난해 9월 서울시극단장을 맡은 이후 2023년 라인업 5편을 발표했다. 올해 초 세종문화회관의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안호상 사장은 "서울시극단 작품이 세종시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고선웅 연출이 그 역할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힌 것처럼 <겟팅아웃>에서 보여줄 고선웅 연출과 서울시극단의 합도 관람 포인트다. 서울시극단 2023년 라인업 첫 번째 작품인 <키스>



(04/07-04/30 세종S씨어터)가 순항을 시작한 후, 그 배턴을 이어받은 〈겟팅아웃〉의 연출로서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다.

"올해 발표한 라인업의 기준은 '단원'입니다. 다섯 명 단원 모두 개성이 뚜렷한 배우들이죠. 저는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작품을 선정하고, 소외되는 이 없이, 또 역할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무대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준비할 뿐이죠. 그런 기준으로 고른 좋은 작품들이라 저도 기대가 큽니다. 하반기에는 〈카르멘〉, 〈굿닥터〉, 〈컬렉션〉이 공연될 예정이에요. 제 임기가 3년인데 그동안 '서울시극단 연극 괜찮은데' 하는 평을 들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극단은 2015년 이후 8년 만인 올해, 두 명의 신단원을 선발했다. 경쟁률은 무려 80대1. 고선웅 연출에게는 단장으로서 앞으로 서울시극단만의 색깔을 함께 만들어 갈 배우를 찾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쟁률 숫자의 무게는 묵직했다. 최종 선발된 배우는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두각을 보여온 정원조·이승우. 두 배우는 이미 〈키스〉에서 화제의 데뷔전을 치르고 새로운 무대를 앞두고 있다. 〈겟팅아웃〉은 고선웅의 연출에 극단의 다섯 배우가 모두 출연하는, 그러니까 서울시극단의 방향성을 점칠 수 있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도 더욱 놓칠 수 없다.

고선웅과 '극단'은 떼놓을 수 없다. 연출가로 데뷔한 뒤 다양한 제작사와 프로젝트 공연을 연출했고 2018년에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폐막식 연출까지 맡았지만, 그는 언제나 극단에 있었다. 고선웅 연출이 2005년 창단한 극공작소 마방진은 지난 18년 동안 〈마리화나〉[2006], 〈강철왕〉[2008], 〈들소의 달〉[2010], 〈칼로막베스〉[2011], 〈홍도〉[2014], 그리고 중국 고전 희극을 바탕으로 한 〈낙타상자〉[2019]와 〈회란기〉[2022]까지 '고선웅식 연출 스타일'을 다지는 전진기지로, 다시 보고 싶을 만한 주요 작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기도극단 예술감독[2010-2014]을 거쳐 작년부터 서울시극단장을 맡아 단체의 성격에 맞는 작품들을 선보여왔으며, 국립극단과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2015]을, 국립창극단과는 〈변강쇠 점 찍고 옹녀〉[2014], 〈홍보씨〉[2017], 〈귀토〉[2021] 등을 작업하며 지금의 창극 전성기를 가져오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개인이 창단한 극단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단체의 제작 방향과 작품의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는 언제나 '즐겁게 함께 만드는 공연은 관객도 즐겁다'는 공식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인간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담아

마샤 노먼은 1977년, 그의 나이 서른 살에 '겟팅아웃'을 세상에 내놓으며 희곡작가의 삶을 시작했다. 모든 예술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지난 시간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 예술가의 현재는 과거의 축적이다. 고선웅 연출과 연극의 첫 만남은 행복한 기억일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연극을 본 적도 없었어요. 학력고사 일주일 전에도 시 합평회를 열 정도로 시에 빠져 있었죠. 연극을 처음 만난 건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고 난 뒤였어요. 학교 연극반 '영죽무대'에서 조광화 연출님의 〈페스트〉를 처음 본 거죠. 스무 살의 봄부터 지금까지, 지난 36년간 단 한 번도 연극을 떠난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도 단막극 순회공연을 했고, 학교 졸업 후에 잠깐 일했던 광고회사에서도 제가 기획하는 행사에는 연극을 넣을 정도였으니까요."

고선웅 연출이 어떻게 연극계에 데뷔하게 됐는지는 연극판에서는 꽤 유명한 에피소드다. 학과 공부보다 연극에 진심이었던 그는 괜찮은 광고회사에 입사해 버젓이 성과도 내며 일도 잘했건만 4년 만에 박차고 나와서 소극장을 차리겠다고 결심했다. "여기에 극장 지으면 망해!"라던 계룡산 도사의 예언을 허투루 들어서일까. 정말로 전 재산을 날렸다. 이젠 정말 돈도 없고, 방 안에 틀어박혀 글만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용한 계룡산 도사도 고선웅 연출이 상도 수두룩 받고, 연출가로 이름을 날린다는 점괘는 보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1993년 OB스카이 대학연극제에서 피터 섀퍼[Peter Shaffer]의 〈태양제국의 멸망〉으로 대상을 받은 뒤, 1999년 '우울한 풍경 속의 여자'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떠도는 자, 정여립'이 국립극장 창작공모에 뽑혔고, 2001년 '천적공존기'로 옥랑희곡상을 수상하고 나서는 이 지면이 차고 넘칠 정도로 수많은 시상식의 수상자로 호명됐다.

"돌이켜보니 모든 게 비관적이기만 했던 20대는 연극을 하면서 행복해졌어요. 그래도 당시 치열했던 학생운동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있죠. 친구들은 치약 바르고 화염병을 들고 교문 밖으로 나서는데, 저는 교내 극장으로 올라가는 그 엇갈림에 대한 죄의식 같은 거요."

그래서 연극 〈들소의 달〉, 〈푸르른 날에〉[2011], 〈나는 광주에 없었다〉[2019], 그리고 뮤지컬 〈광주〉[2020]까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때는 미처 하지 못한 나름의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고선웅 연출은 답했다.

"투쟁의 방식은 모두가 다르겠지요. 그래도 제가 연극을 하면서 오랫동안 놓지 않았던 건 인간에 대한 연민, 사랑이에요. 연극은 사랑 없이는 절대 완성될 수 없죠. 마치 한 몸처럼요. 연극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왜 연극을 볼까. 숨 막히는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시대에서 그 대답은 점점 더 궁색해지는 것만 같다. 챗GPT는 "오락과 교육, 그리고 예술의 한 장르로서 감상과 경험을 위해" 연극을 본다고 일목요연하게 답하지만, 그게 과연 연극일까.

"연극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이 연기하고,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죠. AI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그걸 찾아내는 게 연극의 과업이고, 그걸 찾아내는 연극이 재미있죠."

좋은 연극 한 편을 보고 나오는 밤이면, 그는 집까지 걸어간다고 했다. 가는 길에 술집이 보이면 혼자 소주 한 병을 기울이며 생각한다고 했다. '좋은 연극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나는 늘 믿어왔다. 스페인 작가 후안 마요르가의 말처럼 "좋은 연극은 생각하게 한다"고. 고선웅 연출을 인터뷰하고 돌아가는 길에, 혼자 소주 한 병을 기울였다. 내가 틀렸다. 〈겟팅아웃〉은 고선웅 연출을 만나야 하는 작품이었다.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범람하는 지금, 그는 우리에게 이 작품으로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용서와 희망,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자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 〈겟팅아웃〉이 더욱 기다려질 수밖에.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성시영

글. 허윤희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사진. Studio79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음악그룹 나무 멤버, 인디 밴드 49 Morphines의 보컬… 모두 동일인이라면 믿겠는가. 이 남자의 끼와 역량은 끝을 모르고 질주 중이다. 국악관현악단의 피리와 태평소 주자로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오르고, 나무에선 피리뿐 아니라 기타 연주도 한다. 그보다 더 오래된 건 홍대 인디 클럽에서 폭발하는 보컬 경력이다. 아티스트 성시영은 도저히 한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다채로운 에너지와 음악적 역량을 발산하고 있다.

한여름을 수놓을 빛과 소리

성시영은 올여름 광화문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의 야심 찬 프로젝트 '싱크 넥스트Sync Next 23' 참여 아티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시작한 '싱크 넥스트'는 장르 구분이나 작품 형식과 같은 관습적 기준에서 벗어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여름 시즌 프로그램. 올해는 7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67일간 세종S씨어터에서 펼쳐진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이 시대의 가장 '핫'한 아티스트 분들을 모셨다"며 지난달 최종 라인업 12개 팀을 발표했다.

성시영은 록밴드 잠비나이의 리더이자 피리·태평소 연주자 겸 기타리스트인 이일우, 전통 연희에 기반을 두고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타악 연주자 황민왕,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실력파 연주자 김지현·윤지현과 함께 8월 15일 크로스오버 무대 〈광광,굉굉〉을 선보인다. 성시영은 "광장을 모티프로 하는 실험적 공연"이라고 소개했다. "저한테 먼저 섭외가 왔어요.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실험을 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연주자들을 모았죠. '광장' 하면 제일 먼저 광화문광장이 떠오르잖아요. 차가 지나가고, 시끄럽고, 함께 분노했다가 낮에는 가족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 광장이 무대가 되는 거예요."

공연 제목은 말 그대로 빛光과 소리의 조합. 민중의 목소리가 모이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시민의 휴식과 축제의 장소가 되기까지 광장이라는 공간에 흐르는 과거와 현재를 빛과 소리로 이어낸다는 취지다. 국악기와 타악기, 목소리가 빛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창작과 즉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악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함께 무대를 만드는 이일우·황민왕과는 동갑 절친이다. 그는 "저희가 개띠 세 명이라 단톡방이 따로 있다"며 "이번에도 한번 재밌게 해 보자고 의기투합했다"고 했다. 미디어 아티스트 윤제호의 비주얼 아트가 결합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광장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기억과 추억 속에서 다층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죠. 역사 속 민족의 저항과 환희에 대한 기억이든,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추억의 시간이든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빛과 소리를 통해 광화문을 가로지르는 시간 여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나무,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음악 동지

성시영은 2021년 음악그룹 나무 멤버로 합류했다. 나무는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형식을 넘나드는 창작을 시도해온 그룹. 기존 멤버인 대금 연주자 이아람, 타악 연주자 황민왕, 베이시스트 최인환과는 모두 오랜 친분이 있다. 이아람과는 국악중학교 시절부터 어울리다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에 입학해 선후배 사이가 됐고, 당시 황민왕은 연희과를 다니고 있었다. 음악적인 호흡이 잘 맞아서 여러 작업을 함께하다 보니 그룹이 됐다. 성시영은 2019년 〈팔음八音〉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객원 멤버로 함께하다가, 2년 뒤 정식 멤버가 됐다. 당시 나무 멤버들은 "〈팔음〉 초연 당시 피리와 기타 연주로 세련미와 풍성함을 더해준 성시영에게 러브콜을 보낸 지 2년 만의 합류"라며 환영했고, 그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면서도 동시에 연주자만 알 수 있는 까다롭고 섬세한 부분이나 깊은 감정을 담아낸 음악을 보여주고 싶다"고 화답했다.

그룹 이름 '나무'는 무슨 뜻일까. "2011년 아람 형님과 둘이 작은 공연에 참여하면서 이름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연주하는 악기가 나무고, 밖에 나가도 흔히 나무를 만날 수 있잖아요.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큰 숲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정했죠. 아람 형님이 그룹을 결성하면서 그 이름을 다시 사용했고요."

이름처럼 그들은 전통음악에 깊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단단하고 묵직하면서도 시대의 감성에 맞는 음악을 발표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무대가 앞서 이야기한 〈팔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이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쇼케이스 심사에서 "전통의 원형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재해석, 참신하고 실험적인 창작공연으로서의 예시가 될 뿐 아니라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완성도를 보여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악과 향악의 악기 구성 기본 단위인 '8음'을 뼈대로 종묘제례악을 분해하고 재조립한 뒤, 세련된 감성을 입혀 신선한 충격을 줬다.

성시영은 이 공연에서 피리와 태평소·기타까지 오가며 무대를 쥐락펴락한다. 유튜브로 실황 영상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국악관현악 무대와는 연주자로서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그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선 피리보다 태평소 주자로 계속 무대에 올랐다. 태평소 소리가 워낙 크고 튀니까 무대에 오를 때면 늘 중압감이 컸다"며, "엄청나게 긴장하며 대극장 무대에 오른 경험 덕분에 단련도 많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룹에선 제가 자유롭게 해 볼 수 있는 것에 좀 더 열려 있지만, 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가 존재하고, 모두의 호흡이 잘 맞는 게 중요하죠. 악보를 칼같이 지켜야 하니까 즉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요. 틀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태평소가 독주 악기로 나올 때는 내가 관현악 전체를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밀고 나갔어요. 내 소리를 힘 있게 밀고 가는 경험이 쌓이니까, 다른 무대에 설 때도 하나도 안 떨리는 거에요. 대극장에서 그만큼 단련이 된 거죠. 그런 부분도 악단에 고맙고요. 피리 주자는 합주니까 즉흥이 끼어들 여지가 없지만, 태평소를 쥘 때는 혼자 애드리브도 살짝 넣어보면서 재미를 찾고 있어요. 하하!"

그는 곧 나무 2집 앨범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작곡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멤버 모두가 작곡을 한다. 주요 멜로디나 장단을 정한 뒤 살을 계속 붙이는 식으로 공동 창작을 한다. "각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서 2박 3일 함께 먹고 자며 곡을 같이 만든다"고 했다. 오랜 음악적 동료라지만, 종종 싸우지 않을까. 그는 "한 번도 싸운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음악적 견해가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저희는 그냥 담배 피우러 나갑니다.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금세 풀리고, 다시 들어가서 해 보자, 으쌰으쌰 하게 돼요."

3지망 피리가 인생 악기로

성시영은 대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땐 육상부 달리기 선수였다. 어쩌다 보니 국악중학교에 입학했다. "저도 최근에야 어머니께 들었어요. 두 살 위 누나가 먼저 국악중학교에 갔는데, 누나 혼자 떨어져 있으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동생인 저도 보내야겠다 생각하셨대요. 국악에 관심도 없던 제가, 달리기 열심히 하다가 얼떨결에 시험에 붙은 거죠. (웃음)"

피리는 1지망도 2지망도 아닌, 3지망이었다. 그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웃었다. "제일 가볍고, 휴대하기 좋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한 악기가 바로 피리"라는 것이다. 국악고등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와 예술전문사를 졸업했다.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다.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뒤 2008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 입단했다.

끼와 노래 실력은 타고났다. 지금도 홍대 앞 무대에 오르는 인디 밴드의 출발이 국악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3학년 때 기타 하는 이일우랑 스쿨밴드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비로 구입한 악기를 학교 지하실에 넣어두고 연습했죠. 국악중학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밴드일 겁니다. 스승의날에 서태지의 '교실이데아'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하고 고음을 지르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열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밴드가 흘러흘러 지금까지 온 겁니다."

관현악과 실내악, 인디 밴드. 피리와 기타, 보컬. 그러니까 이 재주 많은 아티스트에게 세 가지 정체성은 상호 보완적이다. 성시영은 "악단에서 관현악 연주를 하면서 클래식의 정수를 느끼고, 간혹 틀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홍대 앞에서 폭발적 고음을 발산하며 또 다른 에너지를 얻는다"며 "음악그룹 나무에서 동료들과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며 맛보는 희열도 짜릿하다"고 했다.

그래도 굳이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당연히 피리가 1등이죠. 다른 음악 활동은 피리 연주자로 더 굳건히 설 수 있기 위한 소스라고 할까요. (웃음)"

"전통음악에서 출발해야 길게 간다"

성시영은 취미도 많다. 오토바이도 타고, 캠핑과 낚시도 좋아한다. 물을 좋아해서 바다·호수·계곡에 가는 걸 즐긴다. 작곡할 때 음악의 원천은 "영화나 드라마의 OST가 장면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 창작 동기가 유발되는 것 같다"며 "평소 감정 상태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2016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실내악 축제-백화난만百花爛漫〉(2016/10/26-10/28 세종체임버홀)에서 그가 창작한 작품 '불안의 시간'을 무대에 올렸다. 가야금·아쟁·거문고·대금·피리·생황·타악기가 편성된 실내악곡이다. 그때 당시의 감정을 음악으로 만든 작품이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안한 시간을 실내악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연주자로서의 포부를 물었다. 그는 "함부로 따라 할 수 없는 독특한 색깔을 가진 연주자"를 꿈꾼다고 했다.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는지 물었더니, 피리 명인 최경만을 꼽았다. "얼마 전에도 뵈었는데 저 연세에 저렇게 멋있게 연주할 수 있다니 존경심이 들었어요. 해가 갈수록 더 신사답고, 더 멋이 나는 선생님입니다. 가르치실 때의 말투, 표정, 연주할 때 소리, 모든 게 그래요. 저도 나이 들어도 기품 있게 연주하는 음악인이 되고 싶어요."

20세기 클래식 음악계를 이끈 레너드 번스타인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고 말했다던가. 성시영은 "피리야말로 정직한 악기"라고 했다.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 불면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며 "오래 쉬면 쉰 만큼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

악단에 오래 몸담아온 그에게 국악관현악단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그는 "젊은 작곡가들이 스케일이 큰 관현악곡을 쓰고, 실연할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며 "교수나 외국의 유명 작곡가 등에게 위촉해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신인 작곡가를 많이 발굴하고 창작자의 판로를 열어주는 위촉 공연이나 작곡 공모전이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국악관현악단의 맏형이지만, 최근 젊은 단원들도 많이 들어와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올해 정기 연주회도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창작 실내악 그룹을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어설픈 컬래버레이션은 수명이 금방 다하는 것 같아요. 전통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산조·굿·민요·종묘제례악. 한국의 전통 음악은 정말 넓고 소스가 무궁무진해요. 다양한 장르와 장단 등 전통을 충분히 익히고, 거기서 출발해야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문화, 스니커즈

글. 김현중
무신사 에디터
사진. 구본숙

스니커즈Sneakers는 단순히 의복 카테고리의 일부가 아니다. 운동을 위한 아이템으로 탄생했지만, 지금은 문화를 이끄는 큰 축으로 자리잡았다. 런던 디자인 뮤지엄The Design Museum의 《스니커즈 언박스드Sneakers Unboxed》는 수백만 혹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구매하고 착용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디자인 오브제, 스니커즈에 대한 월드 투어 전시다. 운동선수를 위해 고안된 신발의 한 종류인 스니커즈가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떻게 스타일과 문화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스니커즈의 출발은 1880년 찰스 굿이어Charles Goodyear의 고무 제작 기술로부터 기인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운동용 신발, 즉 스니커sneaker의 모양을 갖추게 된 건 바로 1920년대. 농구와 같은 종목의 운동선수를 위한 스니커즈가 출시돼 그들의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 다른 분야에서도 스니커즈를 신고 사회 영향력을 뻗어나가게 되었다. 바로 힙합이었다. 런 디엠씨Run-D.M.C.는 아디다스의 '슈퍼스타'와 트랙 슈트를 입고 미디어에 모습을 드러냈다. 센세이션이었다. 비보이들은 하나둘 푸마의 스웨이드 스니커즈를 신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새로운 룩과 태도,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중심에 스니커즈가 자리했다. 스니커즈는 점차 트렌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매개로 자리잡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유명 래퍼·셀러브리티가 신는 스니커즈를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섹션이 있다. 바로 조던이다. 오늘날의 스니커 신scene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던 시리즈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설과도 같은 조던 1부터 순간순간을 빛낸 대표 모델까지 전시돼 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조형물이 있다. 바로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364켤레의 스니커즈,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가 신은 스니커즈를 합해 총 365가지의 스니커즈를 표현한 벽이다. 우리가 열광하던 협업 한정판 스니커즈부터, 흔히 만날 수 있지만 남다른 의미를 지닌 아이템까지.



↑ 런던 디자인 뮤지엄 전시 전경
©Ed Reeve/The Design Museum

각자의 신발장에 자리한 스니커즈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찾아보는 것 또한 재미 요소가 된다.

한때 한국은 최고 품질의 신발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던 나라다. 부산에서 만들어진 나이키 신발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기도 했다. 첫 번째 에어 조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그리고 서울은 다르다. 이제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도시가 됐기 때문이다. K팝을 필두로 전 세계에 뻗어나가 패션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글로벌 브랜드의 다양한 협업 제안과 제품 출시는 더 이상 이색적인 일이 아니다. 특히 해외에서 높은 리셀가를 자랑한 조던 3 '서울' 모델을 비롯해 국내 브랜드와 컬래버를 통해 발매한 아이코닉한 스니커즈를 만날 수 있다.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서울' 섹션을 지나 한 층 내려가면 더더욱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스니커즈를 관람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을 풍미한 나이키 SB 모델부터 푸마의 고급 스니커즈 라인 중 하나인 '미하라 야스히로' 등이 전시돼 있다. 그리고 영화 〈백 투 더 퓨쳐Back To The Future〉1987에 등장, 미래를 상징하는 스니커즈로 불린 나이키 '에어 맥MAG' 역시 전시실에 진열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대 후반 트렌드와 문화를 주도한 버질 아블로Virgil Abloh와의 협업 라인인 '더 텐' 시리즈, 디자인 표절 시비로 유명세를 치른 미스치프MSCHF의 웨이비 베이비, 나이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실제 피가 담겨 기괴한 무드의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에어 맥스 97, 그리고 엄청난 리셀가를 자랑한 톰 삭스Tom Sachs의 마스야드 2.0까지. 특히 인상 깊던 점은 스포츠 브랜드에 한정하지 않고 명품 브랜드의 제품도 한자리에 있었다는 점이다.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에스' 역시 기억에 남는 스니커즈 중 하나였다.

스니커즈는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으며 그 저변을 확대해왔지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바로 운동용 신발이라는 점. 즉,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최우선이 된다. 평소 모르고 신던 스니커즈지만, 그 속에 담긴 발전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나가기도 한다.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에서는 시대별 기술이 담긴 스니커즈를 해부해 전시하고 있다. 특히 달리기 기록 단축을 위한 아웃솔을 비롯해 뛰어난 착화감과 안정성을 선사하는 에어 솔 등을 따로 볼 수 있어 생김새라든가 제작 계기 등 궁금하던 내용을 속 시원히 알 수 있어 의미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만나보고 싶던 나이키의 베이퍼 플라이 모델 역시 테크 섹션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벼운 소재로 널리 알려진 카본을 활용해 만든 신발이기 때문이다.

미술관 입구를 들어서면서부터 스니커헤드Sneakerhead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나 자신이 좋아하는 신발, 배경 등을 같이 온 일행과 함께 토론하며 전시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물론, 본인이 잘 아는 분야의 전시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오는 가족 단위 관람객 역시 과거 자신이 좋아하던 신발을 만날 수 있어 반가운 자리인 것은 물론, 연인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충분하다고 느꼈다. 바깥에서 활동하기 참 좋은 요즘,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을 찾아 전시를 즐겨보자. 내가 아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신고 온 스니커즈가 전시돼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벌써 즐거우니까.

스니커즈 언박스드 서울
2023/05/31 - 09/10
세종미술관 1·2관



윤형근, 〈다청 77〉, 1977, 리넨에 유채, 165×130cm, 세종문화회관 소장

윤형근, 화폭에 번진 작가의 인생

글. 조상인
서울경제
미술전문기자
'살아남은 그림들'
저자
사진. Studio Kenn

"평생 진리에 살다 가야 한다, 이거야. 플라톤의 인문학에서는 인간의 본질인데, 진선미. 진실하다는 진眞자와 착할 선善 자와 아름다울 미美인데, 내 생각에는 진 하나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이 지난해 말 내놓은 정규 앨범 1집 〈인디고Indigo〉의 첫 곡 '윤Yun'은 이런 읊조림으로 시작한다. '윤'은 RM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화가 윤형근1928-2007을 가리킨다. 거장 윤형근의 전성기 작품인 〈다청茶青 77〉을 세종대극장 2층으로 오르는 남측 계단에서 만날 수 있다.

짙고 깊은 검은 빛 사이에서 아련하게 번져 나온 암갈색의 일렁임이 보는 사람을 흔들어 놓는 듯하다. 새싹 틔워내는 땅의 갈라짐이려나, 시작을 보여주는 하늘의 열림이려나. 화가는 검은 두 기둥이 벌어진 듯한 이 모습을 두고 "내 그림은 천지문天地門"이라고 했다. 땅 위에 하늘을 겹쳤더니 그 틈에서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차 다茶 자에 푸를 청青 자를 쓴 '다청'. 윤형근은 자연에서 온 옅은 갈색이 마치 잘 숙성된 차 색과 비슷하다고 여겨 '다색'이라 불렀다. 청색은 RM이 〈인디고〉 앨범의 표지 이미지에도 사용한 1972년 작 〈청색Blue〉의 사례처럼 젊은 윤형근이 탐색하고 갈구하던 하늘빛이다. '다청' 혹은 '청다'로도 사용한 작품명은 훗날 '엄버 블루Umber Blue'로 변화한다. 태운 종이 끄트머리 같은 암갈색의 엄버umber는 흙색을 닮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토양에서 유래한 물감 이름이다. 떨어진 낙엽이 세월을 머금어 흙이 되는 그 순간, 새 생명을 품은 바로 그 암갈색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늘의 청색은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윤형근은 땅과 하늘을 합치듯 엄버와 블루를 섞어 자신만의 '오묘한 검정'을 만들었다. 그는 노자의 '도덕경'을 곱씹어 읽었는데, 그 첫 구절에 등장해 깊고 심오한 오묘함을 뜻하는 현지우현玄之又玄의 바로 그 검정玄(현)을 스스로 찾아냈다.

충북 청주 출신의 윤형근은 개화기 지식인이던 외할아버지, 서예·사군자를 즐긴 아버지의 영향을 혈통으로 물려받았다. 문화적으로 풍요했으나 그림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는 데는 반대가 심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과에 진학해 은행원이 됐지만, 도무지 적성에 맞지 않아 미술로 진로를 바꿨다. 대학 입시날, 운명처럼 만난 감독관이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1913-1974였다. 훗날 김환기는 윤형근의 장인이 되니,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이면서도 뛰어넘어야 할 선배로서 미술사적 동지가 된다.

윤형근은 1947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으나 반정부 학생운동에 참여해 제적당했고, 6.25 전쟁 때는 시위 전력으로 '보도연맹'에 끌려가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20대에 이미 반백이 됐다" 한다. 서울대 복학을 저지당했지만, 홍익대학교로 옮긴 김환기의 도움으로 편입해 미술 공부를 계속했다. 그래도 순탄치 않았는데, 1956년에는 6.25 당시 피난 가지 않고 부역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윤형근의 초기작은 색 고운 연두·보라를 화사하게 담고 있었지만 '큰 사건' 이후 화풍 자체가 바뀌어버렸다.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73년에 정치권력자의 부정 입학 비리 사건을 폭로했다가 고초를 겪는다. '레닌 모자'를 쓴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의 죄목을 뒤집어썼다.

"형무소에서 나와 이제껏 그렸던 그림들을 전부 부숴버리고 독기를 내뿜었습니다. 그전에는 색을 썼는데 색채가 싫어졌고 화려한 게 싫어 그림이 검어진 것이지요. 처음에는 원색인데 그 위에 덧그리니까 까맣게 되고, 아예 검게 만들어버리고 싶어 울트라마린ultramarine과 번트 엄버burnt umber를 섞어 먹빛으로 그렸지요."

화가의 개인사와 철학이 만나 예술관을 만들었다. 추사 김정희를 흠모했고 스스로 "추사체의 절제된 추상적 회화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 윤형근은 획을 긋듯 웅혼한 기둥을 세웠고, 우러난 번짐이 마포 천으로 만든 바탕 생지에 스몄다.

생전의 윤형근은 "김환기의 그림은 잔소리가 많고 하늘에서 노닌다"고 말한 적 있다. 그러고 보니 김환기의 점들에는 구구절절 그리운 사연이 흐른다. 반면 윤형근의 그림은 땅에 발을 딛고 흙에서 솟아오른 검은 빛이다. 묵묵하다. 현실적이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빨아들였기에 엄숙하고 평온하다. 스스로 자신의 그림을 "잔소리는 싹 뺀 외마디소리"라 했다.

일찍이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의 추상화를 경험한 서양인들은 동양적 정신성 속에 인간의 존재론적 슬픔과 고독을 담은 윤형근의 작품에 감탄했다. 미국의 미술평론가 조지프 러브Joseph P. Love가 극찬했고, 미니멀리즘 화가 도널드 저드Donald Judd는 윤형근의 작품을 구입해 자신이 설립한 미술관에서 전시도 열었다. 이후 윤형근은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첫 전시에 참여하며 국제적 입지를 세웠다.

최근에는 한국의 1970년대 단색조 추상을 칭하는 '단색화'의 주요 작가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윤형근의 〈엄버 블루Umber-Blue〉가 우리 돈 약 4억 원에 낙찰됐다. 1976년에서 1977년에 걸쳐 제작한 작품이고, 크기는 193.5×130.5cm이니 세종문화회관의 소장품보다 세로 30cm가량 더 길 뿐 제작 시기나 크기, 구도와 색 배치가 거의 흡사하다.

다시 그림을 보자. 칠하지 않은 중앙 부분의 여백은 작가의 말처럼 문이 된다. 열린 문틈이 좁을라치면 그 안에서 한줄기 빛이 새어 나온다. 때로는 색칠한 기둥의 간격이 널찍해 큰 문을 이루면서 그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드나들기도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은 외부로 나아가는 문인 동시에 바깥의 무엇이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다.

'공간에 깃든 예술품' 연재 안내
N°05 | 박서보, 〈묘법 No.24-77〉, 1977
N°06 | 윤형근, 〈다청 77〉, 1977
N°07 | 윤명로, 〈형상 77〉, 1977

세종문화회관

A touring exhibition from the Design Museum, London

런던디자인뮤지엄 월드투어 전시

SNEAKERS UNBOXED

STUDIO TO STREET

SEJONG MUSEUM OF ART

(05/31 ~ 09/10)

#2023#

the DESIGN MUSEUM

Global Sponsor StockX

협찬 롯데백화점 LG전자 NOROO 노루페인트 Mardi Mercredi TURNED_MIX

©ihkim13

세종

서울시뮤지컬단

2023 SEJONG SEASON

MUSICAL

알로하 나의 엄마들

The Picture Bride

2023년 7월 15일(토) ~ 8월 19일(토)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이금이 소설 '알로하, 나의 엄마들' 원작 창비2020

주최 서울시뮤지컬단 주관 세종문화회관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지원 한화생명

티켓가격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 예매문의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세종